

제3장 민 간 신 앙

1. 가정신앙(家庭信仰)

보령지방에서 위해지는 주요 가신(家神)은 조상(祖上)단지, 성주(城主), 조왕(寵王), 토주(土主), 문신(門神), 용왕(龍王) 등이다. 이런 가신들은 집안 주부에 의하여 극진히 섬겨지는데 떡을 하여 각각의 장소에 놓고 위하거나 동지팥죽을 쑤어서 위한다. 안택굿이나 다른 굿을 할 때에도 굿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다음은 주로 보령시 화산동에서 조사된 내용이고 도서 지역은 도서지(1997. 충청남도,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를 참고하였다.

1) 안택

안택은 정월 초 가정의 평안을 위해 행해지던 굿인데, 육지나 도서 지역에서 모두 행하였으나, 도서 지역에서 좀 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장고도의 안택을 소개한다.

장고도에서 안택을 할 때에는 굿을 하는 선거리를 외부에서 모셔 오는데, 대개 홍성이나 광천에서 모셔왔다. 근래에 와서는 홍성 할머니가 와서 안택굿을 해 준다.

택일은 경 읽는 사람(무속인)이 하는데, 대개 손 없는 좋은 날로 잡아 준다. 만약 택일을 했는데 초상이나 출산과 같은 부정이 끼면 달을 넘겨 새 달에 다시 날을 받아서 굿을 한다. 달을 넘겨야 부정이 가시기 때문이다. 안택에 드는 비용은 굿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장고도에서는 경쟁이에게 수고비로 약 5만 원 정도를 준다(1990년대 중반). 제물은 떡, 삼색실과, 고기, 쌀 등을 준비한다. 쌀은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삼색실과와 고기는 장을 봐 온다. 이 때 떡을 한 말 정도 하는 집도 있다.

안택할 때에는 제일 먼저 부엌에서 조왕님께 비손을 하고, 이어 장광에 가서 터주께 한식(한바탕 두드리고 비는 것)을 한다. 그런 후 성주께 가서 비손을 한다.

먼저 조왕께 비손할 때에는 제물을 다음과 같이 진설한다. 떡은 시루에 찌서 술에 걸어 놓은 채 뚜껑만 열고, 삼색실과는 조왕널이(술과 술 사이의 위쪽에 설치해 놓은

선반)에 올리고, 솥 옆에는 짚을 세갈래(삼발래)로 깔고 그 위에 물 한 동이를 올린다. 그런 다음 “조왕님네, 일년 열두 달 돌아가도, 집안이 우환이 없으라고 하고, 낮에는 물 밝히고, 밤에는 불 밝히라.” 또는 “부자되게 해 달라.”고 비손한다. 부엌에서 조왕님께 비손을 하고 나면, 떡시루와 물 한 동이를 장광으로 옮겨 진설한다.

장광에서는 이렇게 떡시루와 물 한 동이만을 놓고 ‘한식’을 한다. 이 때 “터주님네, 일년 열두 달 돌아가도, 집안이 우환 없으라고 하고, 낮에는 물 밝히고, 밤에는 불 밝히라.” 또는 “부자되게 해 달라.”고 비손한다. 비손이 끝나면 떡시루를 떼어다가 다시 방안에 진설한다. 이와 같이 조왕과 장광에는 간단하게 비손을 한다.

성주상은 안방 아랫목에 모신다. 성주상에는 쌀 서너 되를 올리고, 불밝이불을 올린다. 그 옆에는 조부모상, 부모님상도 차려 놓는다. 비손은 점쟁이가 하는데 “성주님네, 일년 열두 달, 열두 달 삼백 육십 예순 날 돌아가도, 집안에 아무 우환, 질환 없게 해 달라.” 또는 “부자되게 해 달라.” 또는 “자식들 잘 크게 해 달라.” 또는 “자식들 반듯하게 해 달라.”고 빈다. 이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음식만 진설하여 놓을 뿐 비손은 하지 않는다.

만일 성주를 다시 받을 경우에는 예전 성주를 떼어서 불살라 버리고, 예전과 동일한 모양의 성주를 만들어서 “몇 살 먹는 대주의 몸성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받아 모신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대를 만들고 종이를 잘게잘게 찢어서 대에 종이를 매서 마치 무당의 신장대와 같이 만든다. 방 안에서 경쟁이가 축원을 하면, 대잡이를 데려다가 대를 잡게 한다. 이에 대잡이가 대를 잡고 성주내린 곳을 찾는다. 대잡이가 대가 이끄는 대로 가서 “성주님 내렸다”고 하면, 경쟁이는 “그러냐.”고 하면서 그 곳에서 비손을 한다. 경쟁이의 비손이 끝나면 대에 매었던 종이에 물을 묻혀 조물조물 뭉친 다음, 그것을 안방의 아랫목 상단에 붙인다. 이 때 종이 속에는 쌀 약간과 동전을 넣는다. 이런 과정을 마치면 안택은 끝난다.

2) 조상(祖上)

제석 또는 조상대감, 조상님이라고도 불린다. 조상신을 모시는 신체(神體)는 단지에 쌀을 넣고 조상의 위패를 작게 만들어 단지에 넣는다. 청실 홍실을 함께 넣기도 한다.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바꾸어 넣는다. 유교의 4대봉사 영향으로 자기로부터 4대까지의 조상을 모신다고 하나, 보령지방에서는 자기 방계 조상 중에서 후손이 없이 죽은 사람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위패를 단지에 넣을 때는 죽은 사람의 성명을 쓴다.

조상 단지를 놓는 장소는 안방의 선반, 옷방의 선반, 다락 등이며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안택(安宅)할 때는 성주신(城主神) 다음으로 위해진다.

녹도에서는 정월 초하루, 칠월 칠석, 팔월 보름, 선달 그믐에 간단하게 조상을 위했는데 신체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정월 초하루와 칠월 칠석에는 밥을 해서 차려 놓고 조상을 위했다. 그리고 팔월 보름에는 밥과 떡을 해서 위하고, 선달 그믐에는 팥떡, 나물, 고기를 차려 놓고 조상을 위했다.

장고도에서는 안택 할때 조상상을 성주상 옆에 차린다. 귀신이 많은 집은 상을 여러 개 차리고 귀신이 적은 집은 상이 몇 개 안된다. 이 때는 시조부모상, 시부모상 뿐만 아니라 삼촌이 죽은 경우에는 삼촌상도 따로 차린다. 큰 상에 조상들 모두의 상을 함께 차리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섬 지역에서도 대부분 없어지고, 안택할 때만 위한다. 안택도 극히 일부의 가정에서만 한다.

3) 임신네

원산도에서는 김수로왕의 자손인 김해 김 씨가 약 70가구 정도 살고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 김해 김 씨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임신네’를 모두 다 모셨다. 원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는 김해 김 씨는 임신네를 모두 모셨다고 한다. 임신네는 ‘할아버지’ 혹은 ‘조상 할아버지’라고도 불리며, 왕신과는 약간 다르지만 ‘왕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임신네를 모시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 김해 김 씨네 삼형제 중 막내 동생이 싸움에 나가 총각으로 전사하였다. 부모는 막내아들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겨 입던 군복과 노자를(돈) 큰 그릇에 넣어 이를 ‘임신네’라 하여 모셔 그를 위로해 주었다. 자손들도 부모의 뒤를 이어 이 월이면 무당패를 데려다가 크게 굿을 해서 ‘임신네’를 위로해 주었다. 임신네를 위해야 집안이 잘 된다는 믿음에서였다. 집이 분가할 때마다 반드시 임신네를 다시 만들어서 조상으로 섬겼다.

임신네는 가운데방이나 끝방의 윗목 구석진 곳에 선반을 만들어 그 위에 모신다. 임신네의 신체는 다음과 같다. 형체는 버들바구니 안에 비단을 깔고 그 안에 조그만 나무상자를 넣는다. 이 때 나무상자 속에는 두루마기 혹은 사모관대복(옛날 군인복으로서 너 발의 엽전을 끼워서 넣는다)을 넣는다. 그 옆에는 4-5되 분량의 쌀이 담긴 항아리를 올려 놓는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묵은 쌀을 꺼내 밥을 지어 먹고, 다시 햅쌀로 갈아 넣는다. 그리고 출어할 때마다 그 앞에서 ‘돈 좀 많이 벌게 해 달라’며 비손한다. 그래서 어업으로 돈을 벌어오면 이 선반 위에 먼저 올려놓는다.

이렇게 정성껏 위하다가도 만일 집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조상인 임신네를 탓하기도 한다. 선촌에 사는 어떤 사람도 임신네를 정성스럽게 위하다가, 어느 날 임신네를 때려 부수고 짚배를 만들어 엽전과 함께 바다에 띄워 보냈다. 이 때 집안 식구들은 벌 받는다고 여겨 ‘벌벌벌’ 떨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몇 집에서 위하던 임신네를 불태우거나 짚배로 띄워보내 없었다고 한다. 현재는 거의 모시지 않는다.

4) 성주(城主)

성주는 가택신(家宅神) 또는 대왕(岱王=家長)의 수호신으로서 많은 가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다. 안택을 할 때에는 조왕경 다음으로 반드시 성주경을 읽는데 3만6천 성주대신이 있다고 하며 명당성주, 명성주, 복성주, 가왕성주, 지목성주 등이 있다.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성주신을 받아야 지을 수 있었다. 대들보를 올릴 때 ‘상량제’라는 제를 지내야 성주신이 내려와서 대들보에 위치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대들보를 올리기 전에 돼지머리, 떡, 과일, 술 등을 상에 차려놓고 집의 주인이 절을 한 후 쌀 세 홉을 한지에 싸서 북어와 함께 대들보에 달고 대들보를 올려 상량을 한다. 이 때부터 비로소 성주신이 대들보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성주신을 말할 때 안방 윗목 천장에 목마를 타고 계신다고 말한다. 대들보를 목마로 생각하는 것이다.

집을 짓고 천장과 벽을 모두 바른 뒤 성주신의 신체(神體)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 때 신체는 마루 또는 안방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령 지방에서는 안방의 윗목 벽에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신체는 한지에 쌀, 돈 또는 나뭇가지 세 토막을 넣고 물이나 술에 적서 안방 윗목 벽의 위쪽에 붙인다. 이 성주신은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있거나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나가기 때문에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안택’을 하여 성주신을 받아들인다. 성주신은 집 안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로 내려오고, 나무가 없으면 물로 내려온다.

보령 지방에서는 성주신이 최고의 신으로 조상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를 함께 올리기도 한다. 이 때에는 제상 옆에 ‘성주상’이라고 하여 따로 상을 놓고, 술, 포, 과일을 차려 놓는다. 이 때 성주상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조상신이 제사음식을 먹으러 오는데, 집안 최고의 신인 성주신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성주의 신체를 만들어 놓는 집이 거의 없으며, 제사를 지낼 때 성주상을 차리는 집은 1990년대 초반 학생들을 통하여 조사해 본 바 20% 정도였으나 현재는 도서 지역 일부에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내는 ‘상량제’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가옥에서는 지금도 대부분 행해지고 있으나 성격은 변질되어 있다. 성주신의 하강보다는 복과 재수를 비는 것으로 변질되었으며, 집 짓는 인부들에 대한 위로의 성격이 강하다. 슬라브 건물을 지을 때도 슬라브를 올리는 날,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한다. 상량제의 풍습이 전해진 것이다.

고대도에서는 성주를 한 번 받아서 앉히면, 안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를 지내는 일이 없다. 다만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어른 먼저 드린다는 뜻으로 성주께 밥과 고기를 차려 놓고, 고기 중에서 가장 큰 고기를 말려서 성주께 매달아 놓는다. 이것은 ‘이런 큰 고기를 잡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런 일은 집안의 며느리가 한다.

삼시도에서는 성주를 집안의 어른 신으로 여겨 봄 어장을 앞두고 안택을 할 때 반드시 모신다. 안택하는 날은 손 없고, 부정이 없는 날로 정하는데 출산이나 초상이 나면 하지 않는다. 제물은 시루떡, 나물, 밥, 국, 고기, 대추, 밤, 사과 등을 준비한다. 안택곳은 저녁 무렵부터 시작되어 밤새도록 진행되며 새벽이 되어야 끝이 난다.

곳을 하는 도중에 대잡이가 대를 잡으면 무당이 “성주가 떴느냐, 안떴느냐”라고 묻는다. 성주는 초상이 나거나 집안에 변고가 있을 때에 뜨는 것이라고 여긴다. 성주가 뜨지 않은 경우에는 성주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성주가 뜬 경우에는 대가 일러주는 곳에 가서 성주를 받아 온다. 성주가 나무에 내리면 그 나무를 꺾어 오며, 지푸라기에 내렸으면 그 짚을 주워 온다. 받아 온 성주는 성주상 위에 놓는다. 무당이 흰 종이에 떡을 넣고 술을 적서 손으로 조물조물 주무른 후 벽에 붙인다. 성주는 어느 집이나 막론하고 안방의 윗목에 붙인다. 성주를 붙이고는 철상한다.

외연도에서는 성주를 선달 그믐, 정월 대보름 및 명절과 조상께 제사 지낼 때 모신다. 선달 그믐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큰 집에 모여 제를 지내고 돌아가 각자의 집에서 성주께 제사를 지낸다. 이때 제물은 기제사 지내듯이 준비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밥을 지어 올리고 성주를 모신다. 명절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먼저 성주에게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일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시루를 찌서 조상보다 성주에게 먼저 올리고, 그 음식으로 조상을 위한다. 성주가 조상보다 더 큰 어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섬 지역에서도 안택을 할 때 성주를 모시는 경우는 있으나 성주의 신체를 만들어 놓는 경우는 없다. 명절이나 제사 때 성주를 모시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다.

5) 조왕(竈王)

조왕은 화신(火神)이기 때문에 부엌에 있다고 믿으며, 주부들의 신으로 되어 있다.

부엌 중에서도 부뚜막 또는 아궁이에 있다고 믿는다. 부뚜막에 조그만 단을 모시고 단지에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켜놓는 경우도 있으며 아무 신체도 없이 막연히 부뚜막이 조왕신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다. 절에서도 산신, 칠성신과 함께 중요한 신으로 믿으며, 그림으로 그려 술 뒤에 모시고 선반 위에 음식을 놓기도 한다.



조왕(명천동, 1994.1)

조왕은 항상 그 집에서 조리되는 음식의 냄새를 맡고 따라다니는 객귀나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음식에 물어오는 귀신을 물리치는 신이다. 따라서 집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을 보거나, 밖에서 들어온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부뚜막에 놓았다가 방으로 들여갔다. 특히 시제(時祭)를 지내고 가져오는 떡 등의 음식은 반드시 부뚜막에 놓았다가 방으로 들여 갔다.

조왕은 주부의 신으로 매일 새벽 또는 초하루 보름으로 샘에서 생수를 떠다 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가장을 위한 축원을 하지만, 아이들이 장성하여 대학입시를 준비한다든가 군대에 가면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축원을 한다. 남성을 인도하는 여성의 구원의 힘, 모성애의 보다 깊은 종교적 상징이 바로 조왕신이다.

또한 잡귀를 물리치는 신이기 때문에 안택(安宅)할 때 가장 먼저 부엌에서 경을 읽으며, 8만 4천 제대조왕님이라고 부른다. 안택할 때는 떡, 당, 쌀을 진설하여 조왕상을 차려놓고 백지를 덮어놓은 상태로 부정경을 읽어 잡귀를 물리친 후 조왕에게 치성을 드린다. 안택할 때 제물로 쓰인 쌀을 모두 ‘선거리’가 가져간다.

효자도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조왕을 위했다. 조왕의 신체는 부엌에 모시는데, 술 위에 선반을 걸어 두고 그 위에 물 한 그릇을 올린다. 조왕은 매일 아침 그 집 며느리가 모신다. 며느리는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 우물에 가서 세수를 하고 물을 길어 온다. 그리고 조왕께 물 한 그릇을 올린다. 이때 그 앞에서 빌기도 한다. 이렇게 조왕을 모시는 것을 “조왕에 물 떠 놓는다”라고 표현한다.

다음은 보령지방의 무속인이 사용하는 조왕경과 조왕 관련 일이다.

조왕경(竈王經)

계수장엄조왕신(稽首莊嚴竈王神) 십방조요대광명(十方照曜大光明)
 위광자재조왕신(威光自在竈王神) 토지용신개환희(土地龍神皆歡喜)
 천상사관조왕신(天上仕官竈王神) 합가인중총안령(闔家人衆摠安寧)

내외길창조왕신(內外吉昌竈王神)	금은옥백만당진(金銀玉帛滿堂進)
상봉길경조왕신(常逢吉慶竈王神)	악귀사신퇴산거(惡鬼邪神退散去)
지망주성조왕신(志望周成竈王神)	억선만복개구족(億善萬福皆具足)
이장안주조왕신(離障安住竈王神)	부녀가인증복수(婦女家人增福壽)
재앙영멸조왕신(災殃永滅竈王神)	백병소제대길상(百病消除大吉祥)
회시수호조왕신(會時守護竈王神)	백곡승출양잠배(百穀勝出養蠶倍)
구호사택조왕신(救護舍宅竈王神)	일체제신개환희(一切諸神皆歡喜)

조왕탄일(竈王誕日) : 8월 초3일

- 조왕하강일(竈王下降日) : 갑자(甲子), 갑오(甲午), 갑진(甲辰), 을축(乙丑), 을묘(乙卯), 병신(丙申), 병술(丙戌), 정묘(丁卯), 무자(戊子), 경진(庚辰), 임인(壬寅), 임신(壬申), 계유(癸酉), 계축(癸丑), 계해(癸亥)
- 조왕제길일(竈王祭吉日) : 갑술(甲戌), 갑신(甲申), 갑진(甲辰), 을유(乙酉), 을묘(乙卯), 병오(丙午), 정묘(丁卯), 정해(丁亥), 정유(丁酉), 기묘(己卯), 기축(己丑), 기유(己酉), 경진(庚辰), 신해(辛亥), 신유(辛酉), 계묘(癸卯), 계축(癸丑), 계해(癸亥)
- 조왕도회일(竈王都會日) : 매월 6일, 13일, 14일, 인등대길백사형통(引燈大吉百事亨通)
- 조왕단수리일(竈王壇修理日) : 갑자(甲子), 갑진(甲辰), 갑인(甲寅), 을유(乙酉), 기미(己未)
- 조왕상천일(竈王上天日) : 을축(乙丑), 을미(乙未), 기유(己酉), 기묘(己卯), 수조대길(修竈大吉)

6) 터주

터주는 토주라고도 부르고 터주대감, 터주대장, 토주지신당산신령님, 대감신령님이라고도 부른다. 터주는 택지(宅地)의 주재신으로 나머지 사방지신(四方地神)을 다스리며, 집터의 안전과 보호를 주관한다. 터주의 신체(神體) 봉안은 가을에 수확한 가장 좋은 벼 이삭을 떨어져 작은 단지에 넣고, 짚으로 단지 위쪽을 덮은 것과, 장독대에 빈 시루를 놓고 그 안에 곡식을 담은 사발을 넣은 다음 그 위에 짚을



터주(주교면 신대리, 1994.7)

워어 덮은 형태가 있다. 이 단지를 터주단지, 토주단지, 청룡단지라고 부른다. 고사는 터주단지 앞에 짚을 깔 다음, 그 위에 떡시루, 정화수를 놓고 절을 하며 집안의 평안을 빈다.

보령지방에서는 안택할 때 조왕 다음으로 모신다. 요즈음은 신체를 만들어 놓은 집은 거의 없고, 다만 장독대가 터주라고 믿으며 가을에 떡을 하거나 동지팥죽을 쑤면 장독대에 가져다 놓는다. 무속인의 가정에는 장독대 옆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놓는 경우도 있다.

효자동에서는 터주를 뒤결 장광 가운데에 모시는데, 옛날에는 해마다 일년에 두 번씩 터주제를 지냈다. 대개 음력 정월 열나흘날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냈으나 1989-1990년 경부터는 터주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터주제를 지내는 날 아침에는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 앞 양쪽으로 황토를 한 무더기씩 퍼 놓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머리를 감아 빗고 목욕 재계를 한 뒤, 정갈하게 옷을 갈아 입었다.

정월 열나흘날에는 상당제가 끝났을 때 집집마다 터주제를 지낸다. 이 당제 잡숫는 날에 지내는 터주제는 산신령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선 뒤결 장광 가운데 앞쪽으로 황토를 펴고, 상 위에 팥시루떡과 청수를 올린다. 이때 청수는 깨끗한 그릇에 떠서 놓는다. 그리고 촛불을 켜 다음 시어머니가 그 앞에서 비손을 하고 북서남동의 방향으로 각각 세 번씩 절을 한 뒤, 소지를 올린다.

가을에는 시월이나 동지달 중에서 날을 잡아 터주제를 지냈다. 터주제를 지낼 때는 돼지날이 좋다고 하여 주로 이 날을 잡아 제를 지냈다고 한다. 가을에는 햇곡식을 빵아 흰 무리떡을 쪄 터주를 위했다. 떡을 찰 때에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떡 찌기 전에 화장실에 가면 떡이 잘 익지 않는다고 하여 한 김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터주 앞에서 정성을 드리고 나면 그 상을 그대로 들어다가 조상 앞에 잠깐 놓았다가 이웃이나 식구들과 나누어 먹었다.

7) 업신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일정한 거처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붙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믿는다. 경을 읽거나 제물을 바치지도 않으며 윤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 나간다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보령 지방에서는 업신이 사람, 뱀, 두꺼비, 족제비 등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경우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 며슴 등을 일컬을 때가 많아 ‘○○가 그 집의 업이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새 며느리나 며슴이 들어와 집안 일이 잘 되어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을 업이라고 말한다. 대개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두꺼비나 뱀이 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들이 집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못나가게 하며, 집안의 두꺼비나 뱀을 잡으면 망한다고 금기시한다. 누구네 집에는 업이 들어와 부자가 되고, 누구네 집에는 업이 나가 망했다는 전설이 흔하다.

8) 삼신(三神)

삼신은 산신(産神)이라고도 한다. 삼신은 주부의 수태(受胎), 생산(生産), 발육(發育)을 다스리는 신으로 보령지방에서는 삼신할머니라고 흔히 말하고 아이에게 나타나는 몽고 반점은 아이가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가 때려서 생겼다고 믿는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삼신께 치성을 드리고, 아이가 출생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짚을 한 줌 추려 묶어 안방 윗목 벽에 못을 두 개 박고 걸쳐 놓아 삼신의 신체로 삼고, 그 밑에 찬물을 한 사발 떠 놓고 빌었다. 아기를 낳으면 짚을 내려 펴 놓고, 그 위에 미역국을 끓여 놓는다. 삼신께 밥과 미역국을 바치는 것은 그 후로도 3일, 14일, 21일, 100일, 돌에 행한다. 이것은 아기의 무병장수와 산모의 젖이 많이 나오기를 비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한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던가 아기의 성장에 지장이 생기면 모두가 삼신할머니가 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금줄을 쳐서 외인의 출입을 막아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한다. 부정은 상고(喪故), 화재(火災), 가축의 도살 등으로, 이것을 본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면 부정이 들어 삼신이 노하는 것이다. 부정은 보통 삼칠일(21일) 동안 가리기 때문에 삼칠일이 지난 후에야 이웃에서도 아기를 볼 수 있다.

어느 노인의(화산동) 증언에 의하면 과거 자기의 증조할아버지가 용왕님께 치성을 드리고 태어났는데, 귀한 아들이라 삼신단지를 모셨다. 삼신단지는 안방 선반에 엮어 놓은 단지로, 농사 지은 제일 좋은 쌀을 우선 이 단지에 담아 백지로 꼭 싸 두었다가 칠월 칠석 날 꺼내 밥을 해 먹었다고 한다. 쌀은 꼭 7되가 들어갔는데 그 해 농사가 풍년들면 쌀이 썩거나 벌레 먹는 일이 없이 약간 많아지고, 흉년이 들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썩거나 벌레가 먹고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외연도에서는 삼신이 아기 낳는 것을 돌보는 신이라면, 수부는 삼신을 따라다니는 혼신이라고 한다. 외연도에서는 삼신을 모시기 전에 먼저 수부를 모신다. 그것은 수부를

잘 위해야 산모의 몸이 편안할 수 있고 아기도 건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기를 낳으면 곧바로 수부상(때로는 ‘삼신상’이라고도 함)을 산실 방문 밖에 차려 놓는다. 이 상은 대개 아기를 받은 시어머니나 집안 사람들이 차려주는데, 산모가 혼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산모가 직접 차리기도 한다. 수부상에는 물 한 사발과 쌀, 미역을 올린다. 그리고 아기 낳은 지 이레가 되면 수부상에 밥을 해서 모신다. 세 이레가 되면 수부상에 있던 쌀과 미역으로 밥과 미역국을 끓여서 삼신께 바치고 수부상을 치운다. 그런 다음 삼신께 올렸던 음식은 산모가 먹는다.

장고도에서는 해산과 아이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신으로 삼신과 삼신수부를 위한다. 삼신은 아이를 낳을 때 돌봐주고, 삼신수부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돌봐준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삼신상과 수부상을 차린다. 삼신상은 산실(대개 안방) 방문 안쪽에 차리는데, 상을 놓고 그 위에 짚을 깐다. 그리고 밥 세 보시기, 물 세 보시기, 미역국 세 그릇을 올려 놓는다. 제물을 진설한 다음에는 “삼신할멈네, 삼신할멈네 그저 해병이 물 쏟듯, 그저 순순히 갈라 달라.”고 비손한다.

수부상은 산실 방문 밖에 차려 놓는데, 여기에는 물 한 보시기를 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삼신수부님네,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만리 보는 수부님네, 그저 회복이 물 쏟듯, 해병이 물 쏟듯, 그저 시원하게 어서 삼 갈라서 좀 낳게 해달라.”고 비손한다. 명절이나 안택을 할 때에도 수부상을 차려 놓는다. 수부는 삼신수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수부가 있다. 삼신수부나 집수부는 모두 마루에 모신다.

현재는 병원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삼신이나 삼신수부를 모시는 경우는 없다.

9) 문신(門神)

대문에 있는 여러 신이다. 보령지방에서는 대문에 수문장, 문간대감, 막걸리대감, 도깨비 등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문신이 주관하는 것은 도둑, 문 밖에 나갔을 때의 횡액(橫厄), 선인상봉(善人相逢) 등이다. 문신을 잘 위해야 횡액을 막고 착한 사람을 만난다고 믿는다. 안택굿을 할 때에는 조상 다음으로 모시고 이어서 거리제를 지낸다.

문신에 대한 제물은 떡, 고기, 막걸리 등 가능한 모든 제물을 다 쓰는데 특히 도깨비를 위하여 메밀묵을 쓴다.

외연도, 원산도 등의 섬에서도 위한다. 원산도에서는



문신을 위한 폐백실
(화산동, 1994.1)

바람도 없는 청명한 날에 가만히 들어보면 문에서 ‘똑똑똑똑똑’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 때 문을 두드리면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귀신의 소리라고 한다.

문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여러 잡귀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잡귀를 막기 위하여 龍虎라고 크게 써 붙이기도 하고, 대문 위에는 가시가 많이 달린 엄나무를 걸쳐 놓고, 코뚜레를 걸어놓기도 하였다. 龍虎는 용과 호랑이가 있으니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이고, 엄나무는 가시가 많고 억세어 잡귀를 막는다는 의미이며, 코뚜레는 잡귀가 들어올 경우 코뚜레에 코가 껴이니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이다.



대문의 글씨(청라면 내현리, 2008.07)



대문의 엄나무와 코뚜레
(청라면 내현리 2008.07)

10) 측신(廁神)

변소 즉, 화장실에 있는 신이다. 다섯 신이 있다. 옛날에는 변소에 오주진언 즉, 다섯 신을 위한 경문을 붙여놓고 용변을 볼 때마다 읽기도 하였다고 한다. 측신이 화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측신은 사람처럼 손이 2개 달려있어 용변을 볼 때 똥과 함께 오줌을 누기 때문에 두 손으로 받는다. 용변을 보면서 침을 뱉으면 받을 손이 없어 측신은 몹시 화를 내고, 사람에게 해꼬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변을 볼 때 침을 뱉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고대도에서는 아이들이 변소에 빠지면, 다시 빠지지 않게 해 달라는 의미로 변소제사를 지냈다. 변소 앞에 시루떡을 해 놓고, 그 집 주부가 비손을 하였다. 비손이 끝나면 변소에 빠진 아이를 데려다가 변소 안에서 떡을 먹게 하였다.

과거에는 떡을 하면 변소에 가져다 놓는 등 측신을 위했으나 요즘은 측신을 위하는 집은 없다.

11) 용왕(龍王)

바다 또는 샘에 있는 신이다. 용왕은 아홉이 있다고 믿는다. 변화가 잦고神通하여 아기도 낳게 해 주고, 병도 낫게 해 주며, 재수도 좋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효험이 있다고 믿는다. 해안이나 섬 지역에서는 유왕 또는 요왕이라고도 불린다. 육지 지역에서는 용왕신을 소신(蔬神)이라고 믿어 제물은 떡, 과일, 나물 등을 올린다. 각 가정에서는 주로 샘에서 용왕제를 지내는데 제를 마치면 샘 안에 떡을 몇 조각 넣는다.

녹도에서는 성주를 받은 다음 날 다음과 같이 요왕제를 지낸다. 요왕제 지낼 장소에 도착하면 돛자리를 펴고 상을 놓아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요왕님 밥 세 그릇(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밥까지 떠 놓음), 나물, 지숙, 술을 놓는데, 떡을 조금 떼어다 놓기도 한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제를 지낸다.

다음에 무당이 백지에 밥을 싸서 ‘요왕님께서 즐겁게 드시라’며 물 속에 던져 넣는다. 또 백지에 떡과 제물을 싸서 물에 빠져 죽은 혼령에게도 던져 넣는다. 이 때 물에 던져 넣은 것들이 물 위로 둥둥 떠 다니면 쌀을 던지며 ‘즐겁게 받으시라’고 절을 한 뒤, 다시 한 번 쌀을 던져 넣는다. ‘희식밥’은 따로 준비해 가는데 마지막으로 큰 양재기에 희식밥과 물과 술을 쏟아 섞는다. 이것을 바깥으로 뿌려서 돌아다니는 객귀에게 희식한다.

또한 당제를 지낼 때에 맞춰 개인이 깨끗한 날을 정해서 요왕제를 지낸다. 주로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많이 지낸다. 저녁을 먹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밥과 무나물만 가지고 요왕제 지낼 장소로 간다. 간혹 떡을 이고 가는 사람도 있다. 대성너머라고 하는 갯가에 가서 제물을 차려 놓고 제를 지낸다. 제가 끝나면 하얀 백지에 밥을 뽕뽕 뭉쳐 세 덩어리를 바닷물 속에 던져 넣는다.



용왕제(오천면 영보리, 1999.2)



녹문 용왕제(2002)

앞의 두 경우는 주로 집안의 안주인이 요왕제를 지내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주로

봄 어장 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남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요왕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때에는 제물로 찹쌀에 팥을 넣어 찐 떡시루(세 되 세 홉의 분량), 밥, 지숙(제일 크고 좋은 물고기) 등을 준비한다. 준비된 제물을 배 위에 진설해 놓고, 요왕님께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비손한다. 요즈음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위하지 않는다.

12) 칠성신

칠성신은 하늘의 신으로 북두칠성 신을 말한다. 자손 발원이나 출세, 무병장수 등을 관장한다. 하늘의 신이라 특별하게 거처하는 곳은 없다. 위할 때에는 안방에서 한다. 상을 차려놓고 축원을 하는데, 상에는 백설기, 삼색 나물, 과일 등을 놓는다. 칠성신은 소식(蔬食)하는 신이라 고기는 쓰지 않는다(화산동).

호도에서는 자손이 귀한 집이나 개인의 신수가 사나울 때 더러 칠성을 위했다.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점쟁이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이 때 점쟁이가 ‘칠성을 위하면 자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 칠성을 위했다. 칠성을 위해서 실제로 자손을 얻는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손을 얻으면 더욱 정성들여 위했다고 한다. 칠성은 한 번 위하기 시작하면 대개 평생동안 위했다고 한다.

칠성은 주로 장광에 모시는데, 그 신체는 다음과 같다. 장광에 황토를 펴고 세갈래로 집을 깬다. 그리고 그 위에 물 한 그릇을 올리는데, 이 때 사용하는 그릇은 대개 예쁜 옹기그릇이다. 평상시에는 일주일마다 물을 갈아 칠성을 위한다.

그러나 만일 마을에 초상이나 출산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여겨 그 달을 넘긴 다음 달부터 칠성을 위한다. 또한 칠월 칠석날 밤에는 특별히 백설기나 밥을 하여 물과 함께 올린다. 이 때 밥을 올리는 경우에는 장광 앞에서 직접 노구술에 불을 때서 지어 올린다.

칠성을 위할 때에는 집안의 나이드신 안부인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그리고 밤중이나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칠성에 올릴 물을 떠 온다. 이렇게 옹기그릇에 미리 떠온 물을 장광의 짚 위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향해 두 배 반씩 절을 하는데, 두 손을 크게 벌렸다 모으면서 고개를 숙인다.

이어 옹기그릇에 담긴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땅에 가만히 붓고 그 그릇을 짚 위에 얹어 놓는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물을 떠온다. 요즈음은 위하는 사람이 없다.

13) 왕신(王神)단지

가장 무서운 신단지이다. 선거리(무속인)들이 잘 모시는데 단지에 ‘○○王神’이라고 쓴 위패를 넣고 오색 형짚을 넣어 두는데 성격이 고약하여 잘못 모시면 큰 화를 당한다. 이 단지를 없애려면 반드시 물에 띄워 보내야 하는데, 이 때는 오색의 비단으로 포장을 잘하여 상자에 넣어 큰물에 띄내려 보내야 한다. 이 때 어떤 사람이 오색 비단으로 싸여 있다고 호기심을 가지고 건드리거나 풀어 보면 큰 재앙을 입는다고 믿는다. 예부터 이 왕신단지를 무섭게 여겼기 때문에, 우는 아이가 있으면 “왕신단지를 건드렸나 왜 우니?”라는 말도 한다.

원산도에서는 예전에 시집도 못간 딸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쌍하게 죽으면 제사 조차 지내주지 못하므로, 서운하고 가여운 마음에서 왕신을 만들어 놓고 위했다고 한다. 왕신을 위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 며느리가 들어와서 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왕신을 물에 띄내려 보냈다.

왕신을 떼어버리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7월 장마 때 바닷물이 불어나서 강경, 군산 등지에서 송장, 수박, 호박, 구렁이 등이 원산도 앞바다까지 띄내려 왔다. 만약 왕신을 떼어버리려면 이 때 버드나무, 오동나무, 혹은 단단한 감나무로 짠 좋은 나무케 안에 왕신보따리와 돈 및 옷가지를 함께 넣어 띄내려 보낸다. 그러면 갯가를 지나가던 사람이 좋은 케가 보이므로 몰래 그것을 주워 집 안에서 풀어본다.

돈도 들어있으나, 옷가지와 ‘무슨 왕신할머니, 다른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자손 얻어서 잘 사십시오.’라고 씌어진 글귀를 보고 그것이 곧 왕신보따리임을 깨달으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이것을 주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어쩔 수 없이 몰래 왕신을 위하게 된다. 그래서 “왕신은 큰 귀신여. 무서운 귀신여. 내 귀신이 아니고 남 귀신을 위하는 것이 왕신여. 잘못 위하면 귀신이 드셔서 사람도 잡아간대.”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처럼 왕신을 모시는 것은 워낙 까다로워서 떼어버리려 해도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한다. 만약 내다버린 왕신이 다시 집을 찾아오면 집안 식구들에게 해꼬지를 하고 병마져 들게 한다. 왕신을 내다 버렸다가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므로 다시 왕신을 모시기도 한다.

왕신을 모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운데방이나 옷방 윗목에 선반을 매고 그 위에 옷가지가 든 나무상자를 놓는다. 그 밑으로 구석에 옹기그릇을 놓는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면 햅쌀을 가장 먼저 그 옹기그릇 속에 갖다 넣는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쌀을 꺼내 밥을 지어 물 한 그릇과 함께 올린다. 그리고 왕신에게 올렸던 제물은 식구들이 먹지 않는다.

‘왕신을 모시는 집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집에 딸을 시집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대개 왕신은 남몰래 위했으므로 원산도 내에서도 어느 집에서 왕신을 위했는지 알 수 없다. 현재는 위해지지 않는 신이다.

14) 나무신

집 주변에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신이 함께 있다고 믿는다. 나무에 있는 신은 적극적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신은 아니다. 그래서 나무에 치성을 드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무를 베거나,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박거나 하면 사람에게 해를 주는 신이다. 사람에게 해가 있을 때 보령지방에서는 ‘동티났다.’라고 말한다.

이 동티를 두려워하여 집 주변에 아예 나무를 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베지 않으며, 부득이 벨 경우에는 벤 그루터기에 왕소금을 뿌리고, 칼, 도끼, 낫 등 쇠를 박고, 쇠뿔을 발라 놓기도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근래에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동티의 방지(웅천읍 황교리, 1999.2)



동티의 방지(웅천읍 구룡리)

15) 집 밖에 있으나 가정에서 위하는 신

(1) 산신(山神)

보령 지방에서 동제(洞祭)의 대상도 되지만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산신을 믿고 위한다. 산신은 육산신(肉山神)도 있고 소산신(蔬山神)도 있는데 육산신을 위할 때에는 쇠머리, 돼지머리 등을 제물로 쓰고, 소산신은 고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백설기를 제물로 쓴다. 산신은 여러 신 중에서도 변화가 가장 많고 무서운 신이다. 산신이 관장하는 것은 모든 땅인 바 잘못 모시면 큰일 난다고 믿는다. 특히 시신을 매장할 때 산을 건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묘지를 만들 때에는 산신제를 우선 올리고, 묘지에서 시체를

올릴 때에도 산신제를 먼저 올린다. 묘지에 상석, 비석 등을 세울 때에는 산신제를 모시는 제상도 함께 만든다.

보령지방에서 산신은 호랑이와 함께 다닌다고 믿는다.

일부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위하는 경우가 많고, 묘지를 만들 때는 기독교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산신제를 올린다.

다음은 보령지방의 무속인이 사용하던 산신경이다.

산신경(山神經)

대산소산산왕대신(大山小山山王大神)	대악소악산왕대신(大岳小岳山王大神)
대각소각산왕대신(大覺小覺山王大神)	대축소축산왕대신(大丑小丑山王大神)
미산채처산왕대신(尾山在處山王大神)	사해피발산왕대신(四海被髮山王大神)
외악명산산왕대신(外岳明山山王大神)	금궤대덕산왕대신(金匱大德山王大神)
청룡백호산왕대신(靑龍白虎山王大神)	현무주작산왕대신(玄武朱雀山王大神)
동서남북산왕대신(東西南北山王大神)	원산근산산왕대신(遠山近山山王大神)
상방하방산왕대신(上方下方山王大神)	흉산길산산왕대신(凶山吉山山王大神)

□ 산신탄일(山神誕日) : 3월 16일

□ 산신평강일(山神下降日) : 갑자(甲子), 신술(申戌), 갑오(甲午), 갑인(甲寅), 을축(乙丑), 을해(乙亥), 을미(乙未), 을묘(乙卯), 정해(丁亥), 정미(丁未), 무진(戊辰), 기사(己巳), 기묘(己卯), 기유(己酉), 경진(庚辰), 경술(庚戌), 신묘(辛卯), 신해(辛亥), 임인(壬寅), 계묘(癸卯)

□ 산신헌길일(山神祭吉日) : 갑자(甲子), 갑신(甲申), 을해(乙亥), 을묘(乙卯), 을유(乙酉), 병자(丙子), 병술(丙戌), 경술(庚戌), 신묘(辛卯), 임신(壬申)

(2) 거리신(路神)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거리에 있는 신이다. 보령 지방에서는 ‘노중님’이라고 부르고 신을 위한 제를 ‘거리제’라고 부른다. 거리신은 길거리에 다니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한다. 요즘 교통사고가 많아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중요시 하는 신이다. 거리제의 제물은 시루떡 3켜, 북어포, 나물, 과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력 정월 열나흘에 가장 많이 지내는데, 밤에 짚불을 피우고 지내며, 지낸

후에는 사방에 ‘고시레’를 하고, 짚으로 십자(十字)를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나누어 놓고 촛불을 켜 놓는다. 이 때 길을 가다가 제물을 발견하면 재수가 좋다고 하여 누구나 주워 먹곤 하였다. 신에게 올려진 제물은 병을 쫓기 위한 제물이 아닌 경우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믿었다. 삽시도 원산도 등 도서지역에서도 거리제를 지냈다.

요즈음에도 정월 열나흘날에 거리제를 지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거리제(화산동, 1992)



거리제(화산동, 1994)

(3) 서낭신

서낭신도 마을 신앙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보령지방의 서낭신은 여성이다. 강태공의 부인인 마씨부인이 낚시질하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죽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이나 전해주려고 서낭신이 되었다고 믿는다. 서낭제에는 떡, 고기, 과일, 나물, 포, 술 등을 올리며, 오색 천을 나무에 묶기도 한다. 이것을 폐백드린다고 한다. 서낭신이 마씨부인이기 때문에 화려한 폐백을 드려야 한다고 믿는다. 정월 열나흘에 가장 많은 제를 올린다.

원산도 점촌에서도 서낭제를 지냈다. 정월에 개인이 ‘일년 내내 집안이 좋으라’는 뜻에서 서낭제를 지냈다.

서낭제를 지낼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낸다. 우선 서낭 앞에 열십자로 짚을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북어, 무나물, 삼색실과, 떡, 밥을 올린다. 그런 다음 재배한다.

서낭제를 지낸 제물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짚 위에 쏟아 놓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튿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다가 서낭제를 지낸 떡을 주워 먹는다. 지나가던



성황당(주산면 화평리, 1996.4)

어른들도 서낭떡을 집어 먹는데, 이 떡을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대부분의 성황당이 파괴되었고, 대부분 마을에서 서낭제를 지내지 않는다.



성황당(웅천읍 두룡리,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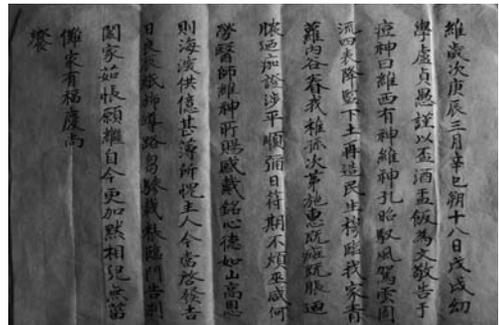
성황당(주산면 금암리, 1998)

(4) 손님[痘神]

질병을 일으키는 역신(疫神)은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마를 일으키는 두신(痘神, 손님)이 가장 무섭다. 이 신은 하도 무서워 잘못 부르면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손님’이라고 높여 불렀다고 한다. 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볶거나 부치거나 하여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옛날 화산동에 손님 차례가 온 아이가 있었는데, 제삿날이라 할 수 없이 골방에 누워 놓고 철질(부침질)을 하였다. 이 때 누가 골방에 좀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아이의 온 몸이 기름에 튀긴 것 같이 벗겨져서 죽어 있었다. 기름 냄새를 맡고 손님이 화가 나 온 몸을 기름에 튀긴 것처럼 벗겨 죽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손님 차례가 되었다. 마을에 일본놈들이 손님 차례하는 사람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아 아들을 깨끗이 씻겨놓고, 그 위에 큰 그릇을 덮어 놓았다. 얼마 후 열어보니 아이가 온 몸을 쥐어뜯고 있었다. 그래서 황급히 부엌에 나가 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생선을 굽고 있었다. 깜짝 놀라 생선을 치우고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두신축문(청라면 내현리, 1940)

한 번은 손님을 앓는 아이가 있었는데, 삼을 소의 바(소를 모는 줄, 코뚜레에 연결되어 있다.)로 쓰기 위해 삼 껍질을 벗겨 쇠죽술에 넣어 삶았다. 이것에 손님이 노하여 아이의 한쪽 눈이 그만 멀어버렸다.

이렇게 무서운 손님을 달래기 위하여 마당에 기를 쫓고 하루에 한 번씩 떡을 해서 치성을 드렸다. 정말로 정성껏 치성을 드려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믿었다.

1990년대 초 화산동의 노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이고, 현재의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5) 역신(疫神)

옛날에는 어떤 병을 앓으면 그것이 역신의 짓이라고 생각하였다. 역신의 짓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그런 뒷박에 쌀을 소복히 부어 보자기를 썬워 거꾸로 하여 아픈 곳을 천천히 문지르면서 입으로는 어디가 아픈지 알려만 달라고 주문한다.

5분정도 이런 행동을 한 후, 뒷박을 바로 세우고 보자기를 걷어 보면, 역신에 의한 병일 경우 틀림없이 쌀의 한 쪽이 함몰해 있는 것이다. 이런 작업으로 역신에 의한 병이 확인되면 ‘짚신이바지’를 한다.

짚신이바지는 짚신에 왕겨를 넣고 된장, 고추를 넣은 후, 아픈 사람이 침을 세 번 뱉어 넣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길거리에 내다놓고 불을 붙인다. 그러면 왕겨불이라 서서히 타 들어가고, 다 타면 병이 낫는다고 믿은 것이다. 짚신을 신지 않은 근래에는 떨어진 고무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요즈음에는 없어진 풍습이다.

(6) 기타 신(神)

요즈음 자동차를 새로 산 후 제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차고사’라고 부르는데 자동차 앞에 제상을 놓고, 돼지머리, 북어, 실, 떡, 과일, 술 등을 차려 제를 올린다. 제는 차주와 가족 친구들이 절을 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때 절을 하는 사람들은 돼지의 입에 돈봉투와 돈을 물려주기도 한다. 제를 마치면 실을 자동차의 핸들에 매달아 놓는다. 어떤 신에게 고사를 올리는지 분명하지 않다.

새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제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돼지머리, 떡, 과일 등을 놓고 올리는데, 주인이 절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낸다. 부자되라는 의미로 지내는데, 어떤 신에게 제를 올리는지 분명하지 않다.

2. 마을 신앙

1) 오천면 외연도 마을 동제

(1) 외연도 당제의 유래

외연도는 육지로부터 53km 떨어진, 주변에 여러 섬이 함께 있는 외연열도의 중심 섬으로 예부터 엄격하게 당제를 지내왔고, 당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외연도 당제의 유래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옛 충청수영이 있던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1598년에 세워진 「유격장군계공청덕비(遊擊將軍季公淸德碑)」, 1619년에 씌어진 서산읍지인 『호산록』, 외연도 당산의 전횡장군 사당에 씌어진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 등이다. 각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격장군계공청덕비(遊擊將軍季公淸德碑)

유격장군계공청덕비는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들어온 명나라 장수 계금(季金) 장군을 칭송하고, 바다에 나갈 때 소원을 비는 상징물로 삼기 위해 1598년 안대진이 써 세운 비이다. 비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將軍旣仁而化令以廉簡威與德並濟得三千同德之士其與田家之五百孰爲之多少 …
萬曆戊戌孟夏 日立

장군은 이미 인자함, 조화(調和)로움, 명령의 엄숙이며 청렴과 간결(簡潔), 위엄(威嚴)과 덕성(德性) 아울러 3천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지냈으니 <외연도에서 제향(祭享)을 받는> 전횡장군(田橫將軍)과 그 휘하의 오백동덕지사(五百同德之士)와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으나, 만력무술(1598) 맹하(4월)

위 비문 내용은 계금장군이 3000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이끌고 왔으므로 500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이끌고 온 전횡장군보다 더 효험이 있을 것이니 계금장군을 신으로 모시고 제향을 받들자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1598년 당시에 외연도에서는 전횡장군을 모시고 제향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유격장군계공청덕비

② 호산록(湖山錄)

호산록은 1619년 한여현(韓汝賢)이 지은 서산읍지로 산천조에 도비산을 설명하면서 외연도의 전횡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번역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비산(島飛山)은 군청 남쪽 15리에 있다. 산 위에는 봉화대가 있고 또한 기우석이 있다. 그 산은 서녘의 끝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쾌하게 개인 날이면 봉화대에 올라가 본즉, 바다에 다니는 길이 분명하고 바다 가운데에 위안도(魏眼島)·오호도(嗚呼島)가 있는데, 이 섬은 전횡(田橫)의 제(齊)나라 지경이 한번 바라보매 다 알 수가 있다. 혹자는 이르기를 ‘오호도는 전횡이 의사 5백 명을 인솔하고 한고조(漢高祖)를 피하여 살던 섬이라고’ 했다.

호산록에서 말하는 위안도는 외연도를 일컫은 것이다. 외연도는 주민들이 보통 ‘오안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위안도를 외연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다만 뒤에 나오는 오호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어청도인가? 녹도인가? 의문이 생긴다. 어청도도 녹도도 근래까지 전횡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호도는 어느 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위안도가 오호도라고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에 의하면 오호도는 전횡장군이 부하 5백 명과 함께 피해 들어간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오호도와 전횡장군에 관하여 이송인, 정도전 등 고려말 문인들이 글을 남긴 것이다. 그리고 정몽주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섬에 들렀을 때 글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외연도가 곧 오호도라고 인정한 것이고, 호산록의 저자인 한여현도 위안도를 오호도로 인정한 것이다.

③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

외연도 전횡장군 사당 앞에 걸려있는 전공사당기를 보면 전횡장군 사당이 1936년 건립되었음과 사당을 건립하기 이전에는 바위에 제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6년 당시에도 살아있는 소를 잡아(牲) 제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전공사당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公姓田諱橫也 古齊之公族也 當漢興齊亡之時 義不屈節 與五百人 入居于滄海國之半洋山矣 漢恐其爲後患 遣使招之 公不得已與二客 至洛陽 自剄于霜花店 嗚呼 公之赴招實非畏漢之威也 使島中之人 免其兵禍也 二客亦不受漢爵 作薤露歌 穿公之塚傍而死 島中五百人 與島樹同日同死 千萬古之所未聞也 公之恩義 胡至此極乎 雖西山之採 東海之蹈 亦不踰此矣 半洋山乃今之外烟島也 至于今數千載 尙未建祠 但以石臺爲享神之堂矣 居民服其節義 感其神明斫伐樹木 始建廟宇 設牲以祭 公

之精靈宛然在上 豈不盛乎豈不敬哉 繼而銘之曰 一片孤島 萬古義魂 海若聽令 巨靈守閭 魚龍古窟 風浪不噴 居民設富 水產盛繁 百世欽仰 永奠香罇

丙子(1936)十一月日

南宮云先 崔文日, 李元京 金德玄, 金昌鉉, 柳昌永, 崔靑龍, 韓永錫, 李二煥, 金正律.

공의 성은 전이요. 이름은 횡으로 옛날 제나라의 공족(公族)이다. 한나라가 흥하고 제나라가 망하자, 의리상 절개를 굽힐 수 없다 하여 오백인과 더불어 창해국 반양산에 들어와 살았다. 한나라는 그가 뒷날 골칫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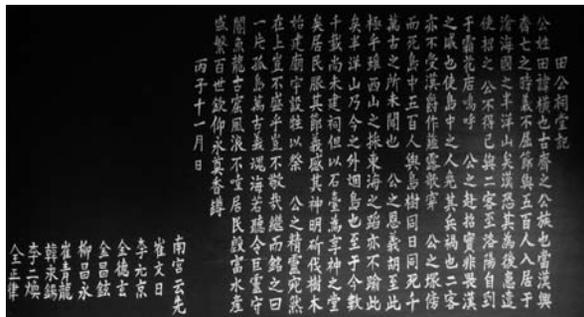
공은 부득이 두 사람과 함께 낙양에 이르렀으나, 쌍화점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으니, 아아! 전공이 부름에 나아간 것은 한나라의 위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섬 안에 살고있는 오백인 사람들이 참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다.

따라간 두 사람도 한의 작위를 받지 않고 해로가(전공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상여소리)를 부르고 공의 무덤 옆을 파고서 죽었다. 섬 안의 오백인도 같은 날 섬 안의 나무에 목매어 죽으니 (이러한 절개는) 천만년 옛날부터 듣지 못했던 일이었다.

공의 은의가 어찌 이토록이나 지극하였던가!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절의나 노중련(魯仲連)의 기개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하였다. 반양산은 바로 지금의 외연도이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다만 너른 바위 하나를 제당으로 삼았었다. 섬의 주민들이 공의 절의에 감복하고 그 신명에 감동하여 나무를 베어 사당을 짓고 제물을 갖추어 제를 지내니 공의 정령이 위에 완연하다. 어찌 풍성히 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리요! 이어 銘을 읊노니

한 조각 외딴 섬. 만고의 의로운 혼령이시여. 해신(海神)이 그 분부를 듣고 거령(巨靈)이 문을 지키니. 수궁의 용왕도. 풍랑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부디 주민들 잘 살게 하고. 고기 많이 잡히게 하소서. 대대로 공손히 우러르며, 향그러운 술과 제물 바치오리다.(송하순 역)

전횡장군 사당을 세운 1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외연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경주최씨의 족보에서 최문일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1866년 생으로 70세 때인 1936년에 사당을 세운 것이다. 외연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재된 10명 중 8명은 외연도 주민이고, 2명은 당시 어업협동조합의 간부였다고 하므로, 전횡장군 사당은 외연도 토착세력과 어업협동조합의 간부들이 합작해서 세웠음을



전횡장군 사당의 전공사당기(2008. 3)

알 수 있다. 전공사당기에 기재된 인물의 출신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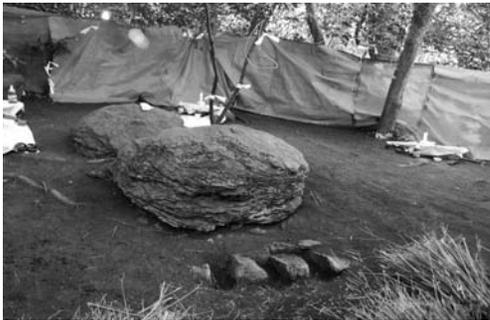
南宮云先(외연도), 崔文日(외연도,1866-1942), 李元京(외연도) 金德玄(외연도), 金昌鉉(외연도), 柳昌永(외지,어업협동조합간부), 崔靑龍(외연도), 韓永錫(외지,어업협동조합간부), 李二煥(외연도,중선배 전주), 金正律(외연도).

(2) 제당의 모습

① 갈당

외연도 당산 정상부분의 동쪽을 통칭하여 갈당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산신당, 전횡장군놀던바위, 김서방바위가 있다. 산신당은 산 정상을 이루는 큰 바위의 동쪽에 포장을 치고 3개의 제단을 호형(弧形)으로 배치하였다. 각 제단은 상(床)만한 납작한 돌이 놓여져 있다. 이 제단을 주민들은 산신당이라고 한다. 3개의 제단 동쪽에는 연이어 작은 바위 2개가 있고, 그 동쪽 바위 밑에 냇비 세 개를 걸 수 있도록 돌로 화덕을 설치하였다.

이 화덕의 남쪽으로 전횡장군 놀던 바위라고 불리는 네모난 큰 돌이 있다. 이 돌의 동쪽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쇠 뼈를 묻는 장소로 이용하고, 바위 동쪽 앞에는 이제까지 바쳐진 쇠뼈가 수북히 쌓여 있다. 이 바위의 서쪽 부분에 제상을 차린다



갈당 모습(2008. 3)



갈당의 길지(2008. 3)

전횡장군놀던바위 서쪽, 전횡장군 사당 정 북쪽으로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김서방바위라고 부른다. 2008년 당주의 말에 의하면 ‘옛날 외연도에 김서방이 살았는데, 글을 많이 알기는 했어도 풀지를 못해서 아주 어렵게 살았다. 배가 고파서 전횡장군 놀던바위 밑에 있는 제물을 가져다 먹고 굶어 죽었다. 그 김서방이 있는 바위를 김서방 바위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김서방바위 위에 약간의 제물을 차린다.

갈당 주변에는 전기 시설이 되어 있다.

② 전횡장군 사당

전횡장군 사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은 1936년에 마을 주민들과 당시 어업조합 간부 직원들이 주동이 되어 건립하였다가 최근 개축하였다. 처음 지어질 때는 함석지붕이었으나 기와로 개축하였다. 용마루의 상량문 중 보이는 글씨는 應天上之三光 南人間之五福이다. 개축할 때 쓴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年度) 부분은 형광등을 달아 보이지 않는다. 전횡장군 사당 주변과 진입로에도 전기 시설이 되어있다.

건물의 내부 공간은 단칸으로 남쪽을 제외한 북, 서, 동 3벽에 1m 높이로 30cm 폭의 선반이 매어져 있다. 북쪽 벽과 동쪽 벽의 선반에는 감실에 담겨 있는 신위 4개가 놓여 있다. 북쪽 벽의 가운데에 있는 신위는 전횡장군신위(田橫將軍神位)이고 그 왼쪽(서쪽)에 있는 신위는 당산신위(堂山神位), 오른쪽(동쪽)에 있는 신위는 도당신위(禱堂神位)이다. 공간의 오른쪽(동쪽) 부분의 선반에는 1개의 신위만 있는데 낡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소저아지씨신위(小姐阿只氏神位)이다. 동쪽 선반에 제물은 2상을 놓지만 신위는 1개만 있는 것이다. 공간의 왼쪽 부분의 선반에는 아무 신위도 없는데 제를 올릴 때는 이곳에도 2상의 제물을 올린다.

선반 위에는 줄이 매어져 있고 흰 백지가 묶여져 있다. 이것을 주민들은 ‘느림’이라고 부른다. 느림은 산제 지내는 곳의 나무에도 매단다.

공간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고, 서쪽 부분에 3개의 항아리와 2개의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다. 이 통은 과거 당제에 바쳐진 옷을 넣어두는 것이다. 옷을 넣어 두는 항아리는 사당의 동쪽 밖에도 2개가 놓여 있다.



전횡장군 사당(2008. 3)



전횡장군 사당 내부(2008. 3)

③ 제당

외연도 당제를 위한 음식을 마련하고, 당주 화장들이 밥을 먹고, 쉬기도 하는 건물인데

특별한 이름이 없어 제당이라고 부른다. 가로 약 5.6m 세로 약 3.3m의 건물로 방이 3칸으로 되어 있다. 가운데 방은 좁고 양쪽 방은 큰 편이다.

문은 남쪽과 동쪽으로 나 있다. 서쪽에 있는 방을 당주방이라고 부르며 중요한 제물을 보관한다. 건물의 뒤에는 2개의 가마솥이 걸려 있고, 건물의 동쪽에는 돌절구가 있고, 많은 물통이 있다. 제당과 주변에는 전기 시설이 되어 있다.



제당(2008. 3)



제물 준비(2008. 3)

(3) 당제 준비

① 제일

원래 외연도의 당제는 1년에 3번 올렸다고 한다. 4월과 11월에 당제를 올리고 8월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노구제를 올렸다고 한다. 1970년대에 3차례 지내던 제를 4월 한번만 지내는 것으로 축소하고, 1980년대에는 7~8년간 제를 지내지 않다가, 1987년 다시 부활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정월 열나흘날(주된 제사는 다음날 새벽에 올리므로 보름)로 정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태안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이월 열나흘날(양력 3월 21일)로 1달 연기하였다.

② 당주 선정

2008년의 당주 선정은 1주일 전인 3월 15일 이루어졌다. 마을 회의에서 결정하였는데, 나이가 적당하고, 제의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선출하였다. 당주를 선정하면 당주네 집 대문에 당기를 꽂고(2008년에는 3월 17일), 대문 앞에는 황토를 두 무더기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당주는 부정을 보지 않기 위해 근신에 들어간다. 부정은 시체, 초상, 제사, 피 등이다.

당주의 선정과 함께 화장도 선정하는데, 화장은 일반적으로 배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당제 지낼 때는 시장을 보고, 지태를 잡고, 음식을 만드는 등

당제를 준비하고, 당제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연령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 정하였다.

화장은 안화장과 밖화장으로 나누어져, 안화장은, 지미, 떡 등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올리는 일을 하고, 밖화장은 지태(소)를 잡는 등,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나 2008년에는 안팎 화장의 임무 구분 없이 일을 하였다. 다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화장은 지미 등 제물을 만들고,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물을 진설하는 안화장을 특히 부당주라고도 불렀다. 젊은 화장들은 마을과 제당 사이를 오르내리는 일, 지태를 끌어오는 일, 물을 받는 일, 지태를 잡는 일, 지태의 가죽을 그을려 닦는 일 등을 하였다. 화장에게는 장화, 운동화, 수건 등이 지급되었다.

당주와 화장을 선정한 다음날인 3월 16일에는 당주와 화장들이 당산에 올라와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포장을 치고, 지태 잡을 때 바닥에 깔 대나무를 베어다 놓고, 장작을 장만하였다. 장작은 당산의 죽은 나무를 베어 만든다.

과거에는 당제에 사용할 제물을 사러 가는 장배도 선정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마을 소유인 복지호(20톤)를 이용하였다. 당주집에 당기를 걸면서 마을 배인 복지호에도 당기를 걸었다.

③ 제비(祭費) 추렴

과거에는 가구당 얼마씩 추렴하여(거두어) 제를 지냈다. 마을의 풍물패를 앞세워 다니면서 추렴을 했는데, 마을에서 ‘밥은 굶어도 당추렴은 내야 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고, 당추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렴하지 않고 어촌계에서 제비를 마련한다.

어촌계 예산을 정할 때 우선 당제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다. 제를 올리고 비용이 남으면 어촌계에 반납한다. 2008년의 경우 총 12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보령시 지원금이 300만 원이었고, 당일 거두어진 성금이 180만 원이었으며, 나머지 720만 원은 어촌계 부담이었다. 지태(소) 값은 420만 원이었다.

④ 당샘 청소

당샘은 외연도 주민들의 생명수이다. 외연도초등학교의 동남쪽에 있는데, 옛날에는 유일한 식수원이었으나 현재는 마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샘물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은 없다.

당제 지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당샘을 풀어내어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에 황토를

놓고 뚜껑을 덮어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다. 당제 기간에는 당제를 위해서만 샘물을 사용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당제 전에 샘물을 길어다 놓아야만 하였다.

2008년도에는 당샘을 풀어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으나 황토를 놓거나 담아놓지는 않았다. 양수기를 설치하여 당산으로 물을 양수하고 있었다. 당샘에 대한 금기사항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시장보기

당제를 위한 시장보기는 광천 장날이나 대천 장날에 맞추어 출발하였다. 옛날에는 광천장을 보았는데 광천장 안날(진날) 독배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다음날 광천장을 보고 돌아왔다. 근래에는 대천장을 보았는데 대천장을 볼 때도 장 안날 셋개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제물을 구입하였다.

현재는 장날과 상관없이 출항한다. 마을 공동 소유의 배가 없었을 때는 마을의 새 배 중에서 부정이 없는 배를 골라 타고 육지에 나왔다. 1960년대까지는 당제에 쓸 물건을 사기 위해 장배가 뜨면 임산부는 해막(解幕)으로 피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부정을 조심했다고 한다.

2008년의 경우는 마을 공동 소유인 복지호에 당기를 달고 출항하였다. 당기는 끝의 가지를 자르지 않은 큰 대나무에 흰 광목으로 큰 깃발을 단 것이다. 깃발에는 한자로 ‘上’이라고 써 놓았다. 2008년에는 당주와 화장 6명이 타고 3월 19일 10시쯤 출항하였다. 출항하면서 당산을 향하여 포와 술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당주가 재배하여 당제 지낼 제물을 사리감을 고하였다. 이어 항해를 계속하여 12시쯤 대천항 여객선 부두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대천에 도착한 당주 일행은 시내 여관에 방을 3칸 얻어 여장을 풀고, 구입할 물품을 점검하고, 당주가 주의사항을 말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먹을 때도 부정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육고기(소,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조기찌개 된장찌개 등 해물만 허용되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 물건의 종류에 따라 두 패로 나뉘어 물건을 구입하였다. 한 패는 구시 방앗간, 시장 들을 돌며 당제에 쓰일 물건을 구입하고, 한 패는 동대동 대형 마트에 가 주민들의 먹을거리를 위주로 하여 구입하였다.

물건을 살 때도 아주 조심하였다. 물건 값을 깎지도 않고, 당제 지낼 것이므로 정갈하게 다루도록 부탁하였다. 특히 종이를 셀 때 침을 묻히지 않도록 하였다.

지태(소)는 코가 뚫려 있어야 하므로 아무데서나 살 수가 없어 특별히 소개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전라도에서 530kg짜리를 구입하고, 다음날 어항으로 실어오도록 하였다.

물건을 구입한 화장들은 이발과 목욕을 하였다. 구입한 물건들은 부피가 큰 것은 다음날 어항 부두로 배달을 의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관방에 정성껏 보관하였다.

3월 19일은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을 먹은 뒤 외연도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10시쯤 어항에 모두 나와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서 실었고, 지태(소)는 크레인을 동원하여 실었다.

어항을 출발하여 뱃머리에서 당주가 간단한 제를 올렸다. 제물은 북어포이고 술 한 잔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무사 항해를 비는 것이다. 외연도에 도착해서 제물을 내리기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제를 올렸다.

외연도에 도착하여 제물은 당주 집으로 옮기고, 지태는 크레인으로 내려 안당에 묶어 두었다. 지태는 언제나 안당에 묶어둔다고 한다.



당주집의 당기와 황토(2008. 3)



장배의 어항 출항(2008. 3)

(4) 당제 절차

① 당 오르기

젯날인 음력 2월 14일(양력 3월 21일) 아침 식사 후 화장들이 모두 모여 제물을 운반한다. 당산에서 사용할 것은 당산에서 가져온 지계에 지고 당산의 동쪽 길로 올라가 제당의 안쪽 방에 백지를 덮어 정갈하게 보관한다. 특히 쌀가루는 백지를 덮어 안쪽 당주 방에 보관한다. 화장이나 주민들이 먹을 막걸리나 고등어 등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경운기에 실어 당산의 서쪽 길로 올라가 제당의 밖에 놓는다.

물은 양수기를 돌려 당샘에서 제당으로 양수한다. 당샘과 제당과의 고도차가 약 60여 m 되기 때문에 양수기 2대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물지계를 지고 날랐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어떤 주민은 열대여섯 살 때 물지계를 지고 당산에 15번 오르내렸다고 말할 정도이다. 음식을 장만할 뿐 아니라, 지태(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량의 물이 필요하였다.

화장들은 점심을 먹고 다시 당에 올라, 갈당 주변과 전횡장군 사당을 청소하고, 물로

씻어낼 곳은 모두 씻어낸다. 김서방바위와 전횡장군놀던바위는 물로 씻어내는 대상이다. 갈당의 산제 지내는 곳에는 서북쪽으로 포장을 치고, 주변 대나무에 수십 개의 길지를 매단 후, 돌을 백지로 싸 제상을 만들고 자리를 깐다. 전횡장군놀던바위는 바위 밑을 모두 파내어 작년에 넣은 쇠뿔은 밖으로 꺼낸 후, 제상을 놓고 자리를 깐다.

오후 3시경 당주는 젊은 화장 3명에게 지시하여 지태를 모셔오도록 하였다. 안당에 매어둔 지태를 몰고 서쪽 길로 당산에 들어왔다. 당산으로 막 들어올 때 한 화장이 큰 통에 담긴 물을 지태에게 뿌려 목욕을 시켰다.

모든 솔을 씻고, 물을 가득 채워 불을 땀다.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물을 끓이는 것이다. 나무(연료)는 1주일 전쯤 화장들이 올라와 장만해 둔 것이다.

이어서 각 제 지내는 장소에 기본적인 제물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다. 기본적인 제물을 진설하는 곳과 제물은 다음과 같다.

전횡장군 사당 : 북쪽 중앙 - 술, 향, 초, 생미.

북쪽 좌 - 술, 향, 초, 생미.

북쪽 우 - 술, 향, 초, 생미.

서쪽 - 술, 향, 초, 생미. 2무더기.

동쪽 - 술, 향, 초, 생미. 2무더기.

동쪽 바닥 - 술, 생미. 6무더기.

갈당 : 술, 향, 초(불바지쌀), 생미

전횡장군놀던바위(뺨묻는 바위) : 술, 향, 초(불바지쌀), 생미.

기본적인 제물의 진설을 마치면 당주가 전횡장군신위에 올릴 남자용 바지저고리, 당산신위와 도당신위에 바칠 여자용 치마저고리를 정성스레 가져와 감실 위에 올려놓고 절한다.



안당에 매어둔 지태(2008. 3)



지태 씻기(2008. 3)



갈당의 제 준비(2008. 3)



전횡장군 사당의 제 준비(2008. 3)

② 제 음식의 준비

이어서 화장들은 갈당의 산신제에 사용할 제물을 준비한다. 갈당의 중요한 제물이 김, 더덕산적, 노구메 등이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김은 제당에서 기름을 바르고 이어서 아궁이에서 구워 준비한다. 더덕은 제당 밖에서 껍질을 벗기고, 제당 안에서 기름을 바른 다음, 제당 뒤 아궁이에서 구워낸다. 만들어진 제물은 제당 안에 정갈하게 보관한다.

노구메를 위한 쌀(생미) 준비가 힘든 작업이다. 전통적으로 노구메는 완전한 쌀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상에 쌀을 부어놓고, 숟가락으로 싸래기 등을 고르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각의 냄비에 담아 정갈하게 보관한다. 또한 팔을 삶는데, 팔은 갈당과 전횡장군 사당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찰떡을 만들기 위함이다.

제에 사용될 음식을 준비하는 화장들은 부정을 방지하고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마스크를 쓰며, 제당 뒤 술이 걸려있는 곳에는 잡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양쪽에 2개씩의 지게를 놓아 둔다.

이때 당주는 제당에서 화장들에게 제 음식 만드는 것을 지시하고, 부당주는 각 제당을 다니면서 향을 갈아 피우고, 초를 갈아 끼운다.

일부 화장은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 제당 뒤에 걸려있는 큰 술에 팔을 넣고 많은 밥을 해서 동이 2개에다 가득 담아 제당 안에 들여놓는다. 1개는 당일 저녁 먹을 것이고, 1개는 다음날 아침 먹을 것이다.

당일 저녁 식사는 6시쯤 제당에서 한다. 제당에서 만든 밥과, 당주집에서 가져온 김치 등 채소 반찬과 고등어자반(고등어 2상자를 자반으로 만들어 옴)을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데 마을 이장, 어촌계장 등이 올라와 있어 약 15명이 식사를 하였다. 술은 막걸리로 여러 통을 가져다 놓고 마신다. 술을 지나치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녁 식사 후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20~30명의 주민이 올라오는데, 모두 음료수 등을 사가지고 와서 수고한다고 인사를 한다. 전횡장군 사당 앞에 마련된 모금함에 돈 봉투를 넣기도 한다.

올라온 주민들은 삼삼오오 앉아 고등어자반과 김치를 안주로 막걸리를 먹거나, 제당에서 화투놀이를 한다. 이때 중요한 제물은 가장 안쪽 방(당주방)에 놓기 때문에 제물이 없는 방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것이다. 당주는 당주방에 앉아 제의 진행 과정을 점검한다.

저녁 식사 후 당주와 화장들은 양치하고 깨끗하게 세수한다. 옛날 화장들은 소변보면 세수하고, 대변보면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자주 세수하는 정도이다.

이어서 제사에 쓰이는 중요한 제물인 고두메를 준비한다. 고두메는 물에 불리지 않은 생쌀(뽕쌀)을 시루에 찐 것이다. 이때 시루 위에는 작년에 사용했던 당기를 찢어 덮고, 술과 시루 사이는 밀가루 반죽으로 메우고, 그 위에 작년에 사용한 당기로 묶어 터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고두메의 김이 오르자 시루 속에, 밤(1말쯤)과 대추(1되쯤)를 집어넣어 함께 찌낸다. 모든 제상에 올려지는 밤과 대추는 고두메와 함께 찌낸 것이다.



노구메 쌀 고르기(2008. 3)



더덕산적 기름바르기(2008. 3)

③ 당제

가. 노구메 올리기

이어서 갈당에서부터 본격적인 제가 올려진다. 2008년에는 저녁 7시 40분에 시작되었다. 당주가 세수를 하고 화장 2명과 쌀이 담긴 노구메 냄비 3개(새로 산 것), 숟가락, 젓가락, 김, 더덕산적 등 3상 분량의 제물을 상에 받쳐들고 갈당으로 간다.

갈당에 도착하면 노구술을 화덕에 걸고 불을 땀다. 불은 마른 대나무를 때는데 각각의

노구술마다 사용하는 대나무가 달라 꼭 그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불을 옮기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금기는 제당 뒤의 술에도 적용되어 불붙은 장작을 다른 아궁이로 절대 옮기지 않는다.

당주는 노구메를 제외한 제물을 산신당에 차려놓고, 술을 따른 다음 두 번 절한다. 세 상에 모두 절한 다음 노구메가 익기를 기다렸다가 노구메가 다 되면 상에 받쳐들고 남쪽 제상부터 올린다. 각 제상마다(3상) 노구메의 뚜껑을 열고, 수저를 깨끗한 다음 젓가락을 산적 위에 올려놓고 2번 절하는 것으로 제를 마친다. 노구메는 갈당에만 올린다.



노구메 짓기(2008. 3)



노구메 올리기(2008. 3)

나. 지미 올리기

저녁 8시 40분쯤,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풍물을 친다. 화장들은 제 준비에 몰두하여 당주 방에서 떡시루를 정성스럽게 앓힌다. 멥쌀가루에 물을 뿌려가며 주걱으로 저어 정성스럽게 양은 떡시루에 담는다.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일한다. 이어서 시루를 제당 뒤의 술으로 옮겨놓고, 작년 당기를 찢어 뚜껑 밑에 덮고, 일부는 밀가루로 메운 술과 시루 사이를 감아 터지지 않도록 하고, 출입구를 지게로 막은 후 불을 땀다.

김이 올라 잘 익은 뒤에 떡시루를 떼어다가 돌 절구통에 쏟아놓고 떡메로 친다. 떡이 다 찢어지면 주먹 2개 크기의 덩어리로 나누어 일부는 방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식는 것을 막기 위해 시루에 넣어 뜨거운 김을 쏘인다. 방에서는 찢어진 떡 덩어리를 길고 둥글게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 자른다. 과거에는 사기그릇 바닥으로 눌러 무늬를 만들었는데, 2008년에는 시도하다가 적당한 그릇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잘라 떡을 만들었다. 이 떡은 절편과 같은 것으로 주민들은 ‘지미’라고 부르고 당제의 중요한 제물이 된다.

9시 50분쯤 산신당에 올렸던 노구밥, 산적, 김 등을 철상하였다. 철상한 밥에 더덕산적,

김 등을 넣고 참기름에 비벼 당주, 마을 사람 등 여럿이 나누어 먹었다. 예부터 이 밥 맛이 일품이었다고 하여 어떤 주민은 기다렸다가 먹고 가기도 하였다. 이어서 올라왔던 마을 주민들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지미가 만들어진 11시 50분쯤, 지미제를 위해 당주와 화장 몇 명이 제물을 들고 갈당으로 이동하였다. 지미제의 제물은 지미, 고두메, 밤, 대추, 꽃감으로 왼쪽 (남쪽) 상부터 진설하고 술을 한 잔 따라 올린 후 당주가 재배하였다. 이때 한 곳에 올릴 때마다 징을 치는데, 징은 처음에 빠르고 작게 지지지지지 하다가, 이어서 크게 징징징 징징징 징징징 세 번씩 세 번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을에서도 지금 제를 얼마만큼 지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절을 마친 당주는 소원을 비는 소지를 올리고, 절을 두 번 더하고, 가운데 제상으로 옮긴다. 가운데 제상에도 똑같은 절차를 마친 후, 동쪽 상에 절차를 마치고, 당주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참석자는 당주, 화장 2명, 징 치는 화장 1명이었다.

이어서 김서방바위에 술, 지미, 고두밥, 대추, 꽃감을 올려 놓았다. 당주 화장 모두 절은 하지 않았다.



지미 만들기(2008. 3)



지미 올리기(2008. 3)

다음으로 당주는 화장과 함께 지미, 고두밥, 밤, 대추, 꽃감 등 제물을 차려 전횡장군 사당으로 내려가 갈당에서와 같이 제를 올렸다. 전횡장군 사당 바닥에 있는 여섯 신위의 상에는 복잡하여 고두메 위에 밤, 대추, 꽃감을 함께 놓아 제물을 차렸다. 전횡장군 사당에서는 징을 울리지 않았다.

다. 지태 도살 및 지태 올리기

3월 22일 00시 20분 당주가 화장들에게 목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후에는 화장실도 못가고 담배도 피울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제당 주변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당주와 세 명의

화장이 완전히 벗고 목욕을 하고, 다른 화장들은 세수만 하였다.

이어서 화장들은 당주방에 있던 찹쌀가루와 삶은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찹쌀가루에 약간의 물을 섞어, 팥과 함께 쪄켜로 떡을 얹히는데 한 쪄에 쌀가루를 3대접씩 넣었다. 이어서 시루는 조심스럽게 제당 뒤쪽 솔으로 옮겨지고, 지게로 통로를 막은 후 불을 때었다.

서쪽에 있는 2개의 솔 앞의 공터에 대나무를 깔기 시작했다. 5일 전에 베어다 놓은 것이라 잎은 모두 말라 있었고, 바닥에 두툼하게 깔았다. 화장들과 마을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였다. 화장들은 서로가 자기는 할 줄(지태를 잡을 줄) 모른다고 하고, 예전에 해보아서 잘 아는 마을 사람은 나서지 않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관계하는 화장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통제하였다.

3월 22일 01시 화장들이 지태를 대나무 위로 끌고 와서 전횡장군 사당 쪽으로 머리를 두고, 서쪽으로 꼬리를 두게 하여 세우고, 코뚜레에 매어진 줄과 엉덩이를 감싼 줄을 각각 나무에 묶고, 이어서 북쪽에 있는 앞 뒤 다리를 줄로 묶어 남쪽으로 끌어내어 몇 사람이 당길 자세를 취한다. 이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태의 정수리를 쇠도끼 뒷면으로 치고, 엉덩이를 떡메로 치라고 지도하고, 징을 치면 마지막 징소리에 실행하라고 알려준다. 젊은 한 화장이 미루기를 포기하고 도끼를 들고 나선다.

3월 22일 01시 30분 징을 울린다. 지지지지 지징징, 징징징, 징징징. 마지막 징소리에 도끼를 휘두르고, 다리를 묶은 줄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엉덩이뼈를 떡메로 치고, 정수리를 도끼로 몇 번 더 친 후, 칼로 목의 대동맥을 잘라 피를 뺀다. 피는 대접으로 받아 양동이에 담는다. 양동이의 3/4 정도가 되었을 때 피 받는 일을 중단하였다. 제에 사용할 만큼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목 부근부터 양쪽으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땅에 닿은 부분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였다. 소가 왼쪽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땅과 접촉한 왼쪽 부위는 제물로 쓸 수 없고, 껍질을 벗기면서도 땅에 닿으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면서 껍질을 벗긴다. 껍질이 모두 벗겨져 바닥에 깔리면 이어서 각 부위를 베어 내기 시작하고, 각 솔은 베어 낸 부위를 꿰이기 위하여 분주하다.

맨 먼저 잘라내는 것은 황소의 성기와 불알 꼬리이다. 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통째로 떼어 내어 불에 그을려 털을 태우고, 칼로 끊어 낸 후 가마솥에 익혀, 전횡장군 사당에 올린다. 이어서 앞 발목, 뒤 발목을 떼어 내어 모닥불에 구워내고 삶는다. 다음은 오른쪽 앞다리를 떼어 내어 나무에 걸고 살을 발라 낸다.

이어서 오른쪽 뒷다리, 왼쪽 앞다리-오른쪽 갈비-오른쪽 목살-왼쪽 뒷다리를 잘라 내는데 오른쪽 부분은 나무에 걸어 살을 발라내고, 왼쪽 부분은 따로 큰 그릇에 담아 놓는다.

내장을 꺼내어 옆으로 제쳐두고, 머리를 자르고, 왼쪽갈비를 떼어낸 후, 등뼈에 붙은 살을 발라내고 등뼈를 7등분으로 잘라낸다. 올릴 제상이 7곳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껍질을 5-6등분으로 잘라서 모닥불에 가져가 털을 태워 칼로 문지르고, 나중에는 쇠 수세미로 문지른다. 지태를 잡는 데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이다. 삶아 잘게 썰어서 안주로 먹는다.

쇠머리는 통째로 모닥불에 그을려 뿔과 털을 제거한 후, 칼로 굽고, 철수세미로 문질러 벗겨낸 후, 4등분하여 삶는다. 쇠머리의 1/4은 전횡장군 상에, 1/4은 전횡장군 놀던바위에, 1/4은 안당고사에 사용한다. 마지막 1/4은 과거에는 장 보러 가는 배를 내준 집에 보냈는데 현재는 당주 집으로 가져가 마을 잔치에 사용된다.

갈비는 살을 대략 제거하여 구워 각 제상에 올려지고, 각 부위에서 발라낸 살은 5cm×5cm 크기로 자른 후 모두 끓는 솥에 넣었다가 익으면 건져 내어 제상에 올려지고 나머지는 포대에 담아 다음날 제물로 쓰이고, 마을 잔치에 쓰인다.

이어서 내장을 뒤적여 제에 필요한 부위를 떼어 낸다. 필요한 부위는 간, 콩팥, 허파, 지라, 심장, 처넙 등이다. 간과 지라 허파는 대나무 꼬챙이에 꿰어 산적을 만들어 제상에 올린다.

각 부위의 제물은 만들어지는 대로 제상으로 옮긴다. 부위를 떼어 내고, 살을 바르고, 뼈와 살을 삶아 제상에 올리고, 새벽에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

올리는 순서는 대개 족, 물뼈, 머리, 불알·꼬리, 앞다리살, 뒷다리살, 목살, 갈비살, 산적(간 허파를 대나무에 꿰어 구운 것), 갈비, 등뼈 등이다.

지태는 전횡장군놀던바위와, 전횡장군 사당에만 올리고, 산제당에는 올리지 않는다. 지태의 진설은 주로 부화장(안화장)이 맡아서 한다.

각 상에 놓여진 지태의 부위는 다음과 같다.

전횡장군놀던바위 : 쇠머리 1/4, 뒷다리뼈, 살코기 3덩어리, 갈비, 등뼈, 산적.

전횡장군 사당의 전횡장군 신위 : 성기 불알 꼬리, 쇠머리 1/49혀 있는 부분), 앞다리뼈, 갈비, 살코기 3덩어리, 등뼈, 산적(간, 허파)

전횡장군 사당의 전횡장군 양쪽 신위 : 살코기 3점, 갈비, 등뼈, 산적

전횡장군 사당의 서쪽과 동쪽 신위 : 살코기 3점, 갈비, 등뼈, 산적

전횡장군 사당의 바다 : 살코기만 3점씩

김서방바위 : 살코기 3점

갈당의 산제당에도 살코기 3덩어리씩을 올려 놓았는데, 당주의 지시로 모두 회수하였다. 갈당에는 원래 육고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3월 22일 04시 40분쯤 지태 고기 진설을 모두 마치고 화장들은 가죽 닦아내는 작업을 계속했다. 당주가 칼판고사를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칼판고사는 칼판(도마)에 술을 한 잔 따라놓고 절하는 것으로, 칼판고사를 지낸 뒤에는 화장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들은 너무 피곤하여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상에 올리고 남은 고기는 모두 마대에 담겼다.



지태의 도살(2008. 3)



지태 제물 준비(2008. 3)



전횡장군 놀던 바위에 올려진 제물(2008.3)



전횡장군 사당에 올려진 제물
(2008. 3)

라. 떡 올리기

이어서 당주와 부당주(안화장)는 세수하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떡으로 제를 올릴 준비를 한다.

3월 22일 05시 05분, 당주는 화장에게 팔떡(찰떡)을 지게하고 갈당으로 올라가 각

신위마다 팔떡을 올리고, 분향하고, 술을 새로 올리고 재배한다. 이어서 전횡장군놀던 바위에 팔떡을 올리고, 분향하고, 술을 올린 뒤, ‘많이 잡수세요’하고 나와 김서방바위에 팔떡을 올리고 전횡장군 사당으로 간다.

전횡장군 사당의 모든 신위에 팔떡을 올리고, 분향하고, 술을 올리고 절을 마치면 (절은 북쪽으로 2번, 서쪽으로 2번, 동쪽으로 2번) 당산에서의 제가 모두 끝나는 것이다. 제를 마치는 시각이 아침 6시쯤이었다.



팔떡 얹히기(2008. 3)



전횡장군 사당에 팔떡 올리기
(2008. 3)

④ 당 내리기

3월 22일 아침을 제당에서 먹었다. 당주, 화장, 올라온 마을 사람 10여 명, 모두 20여 명이 지태(소) 삶은 국물에 어제 저녁에 한 밥을 말아 먹었다. 과거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올라와 지태 삶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심지어는 외연도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수업을 미룬 채 올라와 지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고 하는데, 2008년의 경우는 화장과 주민 10여 명만이 올라와 아침을 먹으면서 옛날 당산에서의 국물맛이 좋았다고 추억어린 이야기를 하였다.

2008년의 경우는 보령시장과 시의장, 도의원, 시의원, 수협조합장 등이 외연도를 방문하기로 하고 어항에서 8시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장이 도착하는 10시에 당 내리기를하기로 하였다.

22일 10시 풍물패의 풍물 속에 시장 일행이 전횡장군 사당에 도착하여, 당주가 먼저 사당의 3면에 두 번씩 절하고, 다음 시장이 사당의 3면에 절하였으며, 이어서 의장, 도의원 등 희망하는 사람들이 절을 하였다.

이어서 당 내리기를 하였다. 당 내리기는 당산의 제물을 처리하고, 마을로 내려가면서 몇 군데에 제를 올리는 것이다. 행진하는 순서는 맨 앞에 당기가 가고, 다음에 당주가

술병을 들고 따르며, 이어서 화장 2명이 지태의 피, 지태의 간 허파를 썰어 섞은 것을 들고, 화장 5명이 지계에 제물을 지고 가고, 다음에 풍물패가 풍물을 치고, 맨 마지막으로 주민이 따른다.

먼저 갈당에 가서 산신당에 절을 하고, 이어서 전횡장군놀던바위에 절을 하고, 모든 제물을 바위 밑에 넣고 넉적한 돌로 단단히 눌러놓은 후, 당산의 동쪽 능선으로 내려온다.



당 내릴 준비(2008. 3)



당내리는 행렬(2008. 3)

⑤ 당 내리면서 올리는 간단한 제

가. 학교 뒤 팽나무제

초등학교 뒤 팽나무와 바위가 있는 곳에 이르면 제를 올린다. 화장이 상 위에 제물을 올려 놓으면 당주가 술을 따라 놓고 두 번 절하는 것으로 제를 마친다. 제물은 고두밥, 지미, 떡, 밤·대추·곶감, 쇠고기 세 덩어리이다.

제를 마친 뒤에는 제물을 나무 밑에 놓고 내려온다.

나. 학교 앞 팽나무제

이어서 당주 일행은 초등학교 남서쪽 팽나무와 바위 있는 곳으로 와 상을 놓고 제를 올린다. 제물은 고두밥, 지미, 떡, 밤·대추·곶감, 쇠고기 3덩어리, 술 한 잔으로 당주가 절을 두 번 하고 제를 마친다. 제물은 모두 바위 위에 그대로 놓고 내려온다.

다. 등장마당제(1)

바닷가에서 안당으로 통하는 길 옆에 어른이 들을 수 있음직한 몇 개의 돌이 놓여있는 곳이 있다. 이곳은 ‘등장마당’이라고 불리는데 옛날에는 큰 돌을 둥그렇게 쌓고 위에 납작한 돌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현재 노인들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옛날부터 이곳에 제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제를 올린다고 한다.

이곳에도 팽나무와 마찬가지로 제상에 고두밥, 지미, 떡, 밤·대추·곶감, 쇠고기 3덩어리. 술 한 잔을 올리고, 당주가 두 번 절하고 제를 마친다. 제물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 놓고 일어선다.

라. 등장마당제(2)

앞서 지낸 등장마당제 장소의 서쪽에 있는 길 가이다. 이곳도 바다에서 안당으로 길을 넓히기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제는 지낸다.

제상에 꼬두밥, 지미, 떡, 밤 대추 곶감, 쇠고기3덩어리. 술1잔을 올리고, 당주가 절을 두 번하고 끝낸다. 제물은 모두 땅바닥에 놓고 이동한다.



학교 앞 팽나무 제(2008. 3)



등장마당 제(2008. 3)

(5) 용왕제와 띠배의 배송, 당샘제, 안당제

① 용왕제

용왕제는 과거에는 ‘장벌고사’라고 하여 마을 앞에 펼쳐져 있던 장벌(사빈)에서 대나무로 2단의 선반을 매고 각 선반에 7위씩 14위의 제물을 차리고 지냈는데, 현재는 장벌이 없어져 선창인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지낸다. 들마루로 만든 큰 상에 14위의 제물을 차린다. 모든 제물을 14개 놓는다는 뜻이다.

신위를 마련하지는 않고 제물만 14개 준비한다. 1신위당 제물은 고두밥, 밤, 대추, 곶감 1그릇, 지미 1그릇, 쇠고기 삶은 것 1그릇, 쇠간, 처넵, 허파 썬 것(생으로) 1그릇, 술잔 1개이다. 특이한 것은 용왕제에는 쇠간과 처넵, 허파 등을 생으로 썰어 제물로 놓는다는 점이다.

용왕제는 마을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당주와 화장이 진설하는 동안 풍물패는 풍물치고, 진설이 끝나면 당주가 14개의 빈 잔에 술을 따르고, 2번 절하는 것으로 제를 마친다. 이후 제물 중 간, 처넛, 허파와 과일, 고기 삶은 것 등을 섞고, 쇠피를 섞어 버무려 바다에 세 번에 나누어 뿌린다. 소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바다가 붉은색으로 물든다.

옛날에는 용왕제를 지낸 후, 각 배에 길지를 나누어주면 각 배에서 길지를 매달고 제를 올렸다고 한다. 먼저 제를 올리는 배가 그해에 풍어를 했기 때문에 서로 먼저 지내려고 뛰어갔다고 한다.



용왕제(2008. 3)



용왕제 제물의 희식(2008. 3)

② 띠배의 배송

용왕제를 마친 후, 화장은 띠배와 제물을 마을 공동 소유인 복지회에 옮겨 신고, 당주와 화장 몇 명, 풍물패가 배에 오른다. 이때 신는 제물은 당주 집에서 정성껏 만든 것이다.

방과제 밖 500m쯤에 이르면 띠배를 뱃머리에 놓고, 띠배 앞에다 제상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린다. 제물은 떡 1시루, 초(쌀사발에 꽃은), 밥 3사발, 쇠고기 산적, 쇠간 전,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김, 술 3잔이다.

풍물을 치고, 당주가 술잔을 올리고, 절을 두 번 하여 제를 마친 다음, 당주가 백지 위에 김을 놓고 김에 밥 3수저, 여러 나물, 산적, 전 등을 넣어 썬 덩어리 세 개를 만든다. 이것을 ‘집’이라고 부른다. 이어서 당주가 뱃전에 나와 덩어리를 하나씩 천천히 바다에 던진다. 이때 덩어리 하나를 던지면서 쌀 세 줌을 바다에 뿌린다.

다음에는 풍물을 치면서, 띠배에 떡, 쌀, 밥, 나물, 과일 등 제물을 넣어, 여럿이 들어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배를 조심스럽게 후진시켜 띠배가 가라앉지 않고 멀리 가도록 한다.



짐과 쌀 던지기(2008. 3)



띠배 배송보내기(2008. 3)

③ 당샘제

용왕제를 마치고 띠배의 배송까지 마친 당주 일행은, 당기를 앞세우고 풍물패와 함께 안당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당샘에 들른다. 당샘 앞에 제상을 놓고 간단하게 제를 올린다.

제물은 고두밥, 지미, 떡, 밤 대추 꽃감, 쇠고기 3덩어리, 술 한 잔이다. 당주가 절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제를 마치고, 제물의 대부분은 당샘 뒤에 놓아두고 안당으로 향한다.



당샘제(2008. 3)

④ 안당제

전황장군 사당의 정 남쪽으로 마을과 당산이 만나는 평지이다. 수백 년 된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가 누워있어 안당의 역사를 말해준다. 지태를 매어두는 곳이기도 하다.

제를 올리기 전에 화장들이 안당에 비닐 포장을 쳐 제 지내는 공간을 만들고, 제상을 준비하여 제물을 진설한다. 안당에서는 북쪽을 향한 제상과 동쪽을 향한 제상 등 2개의 제상을 차리는데 북쪽을 향한 제상은 당산을 위한 것이고, 동쪽을 향한 제상은 당산신과 함께 한 여러 신을 위한 제상이다.

북쪽을 향한 제상은 당주집에서 차려오는데 작은 상을 뒤쪽에, 큰 상을 앞쪽에 두개를 맞대어 놓는다.

뒤쪽 작은 상에는 쇠머리 1/4, 갈비, 간 허파를 떼어 구운 산적을 놓고, 앞쪽 큰 상에는 맨 뒷줄에 떡 한 시루, 초(불바지쌀), 다음 줄에 밥 세 그릇에 수저를 꽂아 놓고, 서쪽으로 산적에 젓가락을 놓고, 가운데줄에는 숙주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을 놓고, 맨 앞줄에는 술 세 잔을 올렸다.

당주가 술잔에 술을 따라놓고 절을 두 번 하면 제는 끝난다.

이어서 서쪽 제단에 제를 올린다. 서쪽 제단은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모두 14상으로, 각 상의 제물은 용왕제와 같이 떡, 지미, 고두밥 (밤 대추 꽃감과 같이), 간 처넵 허파 섞은 것, 술 한 잔이다. 제물을 진설하고 각 잔에 술을 따르고 당주가 2번 절하면 제는 모두 끝난다. 제를 마치면 간 처넵 허파 섞은 것과 과일 등 제물을 섞어 안당 앞 길 옆에 놓는다. 안당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 화장, 모두가 부담없이 제물을 먹는다. 2008년에는 12시쯤 제가 모두 끝났다.



북쪽을 향한 안당제(2008. 3)



동쪽을 향한 안당제(2008. 3)

(6) 제의 마침

과거에는 안당에서 제를 마치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2008년에는 시장과 시청직원, 수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마을 회관에서 회식을 하였다. 마을 회관에서는 지태 삶은 물로 국을 끓이고, 쇠껍질 쇠고기를 썰어 안주로 하여 많은 손님을 치렀다. 마을 사람들도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2) 청라면 의평리 갬발 마을 기우제

(1) 마을의 개관

의평리 갬발 마을은 성주산의 북서쪽 산자락에 있는 마을로 긴 언덕에 나 있는 중앙도로와 하천을 따라 가옥이 들어선 130여 호의 큰 마을이다. 과거에는 전주 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1965년경 성주산의 석탄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최근 1985년부터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석탄 산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급감하여 원래의 농촌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2) 기우제를 지내는 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가 마르고, 벼와 밭곡식이 말라 죽으면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난다. 처음에 여자 노인들이 여론을 일으키고 젊은 여자들이 마을 남자들의 의견도 들어 추진한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공론이라고 한다. 공론이 형성되면 택일을 하는데, 택일은 가까운 날 중 손이 없는 날로 하여, 마을에서 구학문을 잘 아는 사람이 한다.

책력을 보면 그해에 비가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대략 알 수 있다고 한다. 책력에 그해의 일용치수(정월 초하루부터 첫 辰日까지의 일 수)가 있는데 일용(一龍)에서부터 열두용까지 있다.

만약 일룡이면 용이 하나라 비 오게 하는 일을 다른 용에게 미룰 수 없어 비가 잘 오지만, 이룡이면 두 용이 서로 비 오게 하는 일을 미루어 비가 잘 오지 않아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한다. 열두 용의 경우는 한 달을 한 용이 맡기 때문에 비가 잘 온다고 한다. 그래서 기우제 지내는 깃발도 일 용인 해에는 용 한 마리만 그리고 두 용인 해에는 용 한 마리를 그린 후 ‘龍’자를 써 넣는다고 한다.

기우제의 빈도는 73세 된 노인이 5~6차례 보았다고 하고, 이사 온 지 37년 되는 주민이 4차례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략 10 년에 1번 정도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기우제를 하루만 지내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절실하게 지냈던 것 같다. 지난 임진년(1952년)에 크게 가물어 3일 동안 절실하게 기우제를 지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축문이 젖어 다 읽지 못했다고 전한다.

다음은 1995년 8월 17일 지낸 기우제의 내용이다.

(3) 기우제의 준비

기우제날이 결정되면 비용을 걸립하는데 집집마다 성의껏 낸다. 대개 쌀 두세 되 정도 내고 돈으로는 3000원 정도 낸다. 요즘은 마을 기금이 있어 마을 기금으로 충당한다. 1995년에는 약 30만 원쯤 들었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2개, 삼색실과, 떡, 포, 밥, 미역국, 술(약주)이 필요하므로 이런 것들을 대천장에서 구입해 오고 마을 대동기(農者天下之大本旗)와 용기(龍旗)를 준비한다. 깃발은 모두 3자 가웃(5치)으로 한다.

옛날에는 황룡리 용뭇에 물 뜨러 가는 여자의 대표와 밤에 축 읽는 사람은 3일 전부터 목욕재계했다고 한다.

(4) 제의 과정

① 유왕제

먼저 청라면 황룡리 용못에서 유왕제(용왕제라고도 함)를 지낸다. 이곳은 오서산에서 발원하여 청라면의 북부 지역을 흐르는 화암천이 산 끝에 부딪쳐 만든 깊은 못으로 예부터 인근 주민들의 기우제 장소로 이용되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본현 동쪽 15리 지점에 용연(龍淵)이 있는데 날이 가물면 비를 비는 곳이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도 기우제 장소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평리 마을은 이곳 용못에서 4k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을 앞에 큰 냇가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기우제날 아침 9시쯤이 되면 마을 회관에 모여 용못으로 향하는 행진을 준비한다. 행진에는 두 개의 기가 앞서는데, 왕대나무의 끝 1m 정도는 가지를 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기를 매단다. 하나에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고 둘레는 검고 굴곡 있는 띠를 둘러 장식한다. 다른 하나에는 하늘로 힘차게 올라가는 용을 붓으로 그리고 그 해의 용 수에 따라 한자로 ‘龍’자를 쓴다. 기의 크기는 마을 기와 같다.

행진에는 주로 여자들이 참여한다. 1995년의 경우 남자는 두세 명만이 참여하고 모두 여자였다. 남자는 마을 대표와 기를 들고 가는 사람뿐이었다. 복장은 남자는 모두 평상복을 입었다.

여자들은 풍물을 치고, 춤을 추고, 키를 쓰고, 수수비를 내두르고, 얼굴에 색을 칠하기도 하고,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가는데, 여자들이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흥물스럽게 해야 하늘이 ‘이놈들’하고 비를 뿌린다고 믿고, 비오기 전에 미친 여자들이 돌아다니듯이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비를 뿌린다고 믿는다.

또한 이렇게 해야 하늘이 기가 막혀서 옷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도 믿으며, 지저분해야 하늘이 비를 뿌려 씻어낸다고 믿는다. 이런 복장은 제를 주관하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



행진하는 모습(1995. 8)

1995년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 남자 : 평상복, 마을 이장은 그대로 걸어가고, 다른 남자는 기를 들고 감.
- 여자 : 한복 : 계절, 연령과 어울리지 않게 입음. 대개 젊은 사람들임.
 붉은 저고리, 짧은 치마 : 계절과 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입음.
 짧은 연두 저고리, 치마 : 계절 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입음.
 블라우스, 멜빵 달린 짧은 주름치마 :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입음.
 키를 쓴 경우 : 평상복에 키를 머리에 이고 한 손으로 잡고 가기도 하고,
 한 손으로 들고 가기도 함.
 기타 : 평상복을 입고 모든 참가자는 수건을 목에 걸치고 밀짚모자를 씀.
- 풍물패 : 꽃 달린 고깔, 흰 바지, 붉은 저고리, 남색 허리띠, 어깨에 교차로 맨 노랑
 붉은 색의 띠. 마을에서 단체로 맞춘 옷이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옛날 기우제 복장〉

가래바지 : 옛날 가래바지를 입는다. 옛날 가래바지는 애기들의 옷처럼 사타구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처녀 분장 : 연지끈지를 찢고 머리를 땡음

할아버지 분장 : 도포, 수염, 담뱃대

할머니 분장 : 한복

신랑 분장 : 사모관대

신부 분장 : 원삼, 족두리

대감 분장 : 도포

행진의 순서는 길 양쪽에 두 기가 앞서가고 다음에 키를 쓰거나 옷을 이상하게 입은
 젊은 사람이 뒤따르고 맨 뒤에는 평상복을 입은 비교적 나이 많은 사람이 따른다. 풍물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걷는다.

행진은 먼저 마을 입구에 있는 동보연탄공장으로 가 풍물을 치고 한 바퀴 돌고(들르지
 않는 경우도 있음), 36호 국도를 따라 청라면 라원리 면소재지로 간다. 면소재지에서
 지서와 면사무소, 농협에 들러 한 바퀴 돌고 풍물을 치며 지덕을 눌러준다. 이때 각 기
 관에서 2~3만 원을 주기도 한다. 면소재지를 지나면 걸음이 빨라지고, 내현리 당안
 마을에 이른다. 당안 마을까지는 풍물을 치고 춤을 추지만 당안과 황룡리 사이의 언덕은
 경사가 심하여 풍물도 치지 않고 춤도 추지 않고 그대로 걸어간다.

황룡리 느르실 마을에 닿아서야 다시 풍물과 춤을 춘다. 의평리 갯밭 마을에서 용뭇까지 가는 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여름 폭염 하에서도 차를 타고 가거나 양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기우제를 지내기 위한 제물과 주민들이 먹을 음식은 트럭으로 별도 운반되었다. 기우제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다.

1995년의 경우 130여 가구의 주민 중 40-50명이 참여하였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다.

용뭇에 도착하면 남자들이 서둘러 냇으로 용뭇 주변을 깎아 제 지낼 장소를 정비하고 기와 풍물패를 앞세운 주민들이 장소를 잡는다. 풍물을 크게 울리고 모두 어울려 춤을 추고 일부는 못에 들어가 춤을 추거나 키로 물을 까부르고 바가지로 물을 떠 서로 뿌리기도 한다. 여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비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때 깃발을 든 사람은 못에 들어가 깃발을 세우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서 있다.

한바탕의 놀이가 끝나면 물가에 비닐 자리를 펴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를 지내는 대상은 용이다. 이때 제상의 방향은 삼살방(三煞方)을 피한다. 제물은 수박, 참외, 마른 명태, 떡, 밥, 미역국, 김, 약주, 향, 초 등이다. 이때 밥과 미역국은 현장에서 끓인다. 부정 때문인데, 쌀과 미역은 마을에서 씻어오고 물도 마을에서 가져온 것을 사용한다.

제의 주관은 비손(여자 무당)이 한다. 먼저 사방에 고개 숙여 절을 하고 제물을 진설한 자리 앞에 정을 얹어놓고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운다. 이때 마을의 대표가 제상 앞에서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예전에는 축문이 있어 읽었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축문을 잃어버려 읽지 못한다고 한다. 마지막에 소지를 올리는데 비손이 마을 대동의 소지를 올리고 각자 가정의 안녕을 비는 뜻에서 소지를 올린다. 제를 올리는 동안에는 풍물도 멈추고 춤도 추지 않는다.

비손이 주관하는 제가 끝나면 비손은 밥 세 덩어리를 김에 싸서 용뭇에 던지고, 북어 대가리에 돌을 매달아 용뭇에 던지며, 술 세 잔을 용뭇에 뿌린다. 주민들은 용뭇에 들어가 각자 병에 물을 담는다. 병의 끝을 술잎으로 막고 거꾸로 들고 마을까지 오는 동안 뿌리기도 하고 마을로 가져와 밤 기우제 때 뿌리기도 한다. 제사 지낸 음식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먹고, 별도로 가져온 밥, 음료수, 술도 먹는다. 점심을 이곳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제가 끝나면 오던 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간다. 풍물도 치지 않고, 춤도 추지 않으며 빠른 걸음으로 마을로 향한다. 1995년의 경우는 마을에서 트럭 한 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한 물건, 음식 등은 모두 트럭에 실어 운반하였고 일부 노인들도 트럭을 타고 마을로 돌아왔다.



유왕제(1995. 8)



유왕제(1995. 8)



유왕제(1995. 8)



유왕제(1995. 8)

② 정자나무제

용뭇에서 돌아온 주민들은 정자나무에 가서 풍물을 울리고 춤을 추고 주과포, 술 등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올린다. 돼지머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이 많은 여자가 주관하는데 모두 서거나 엎드려서 재배한다. 정자나무제가 끝나면 회관으로가 한바탕 놀고 집으로 돌아간다.

③ 당산제

기우제 지내는 날 낮에 마을에 남은 남자들은 당산에 올라가 제 지내는 곳 주변을 정리하고 불 피울 준비를 한다. 나무를 베고 낙엽을 긁어모아 높이 쌓는다. 큰 불기둥이 만들어져야 좋다고 생각하여 높이 만드는 것이다.

정자나무제를 마친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부녀회에서는 제물을 준비한다. 용뭇에서 떠온 물로 메(밥)를 짓고 돼지머리를 삶는다.

저녁을 먹고 어두워지면 풍물패의 풍장 신호에 따라 당산으로 오른다. 이때는 마을의 성인 남녀가 모두 오르는데, 복장은 모두 평상복이고 풍물패만 낮에 입었던 복장이다. 제물은 남자가 가져온다.

마을 회관으로 모이지는 않고 풍물 소리가 나면 당산으로 오르는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모두 손전등을 들고 오른다. 풍물패는 오르면서 계속 농악을 울린다.

당산에 도착한 주민들은 풍물을 울리면서 나뭇누리에 불을 붙인다. 먼저 한 곳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을 계속해서 옮겨 붙인다.



당산제(1995. 8)

이어서 격렬한 불기둥이 만들어지면 풍물을 더 세게 치고 주민들은 어울려 춤을 춘다. 불기둥이 절정을 이룰 때 풍물과 춤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한참을 추다가 불이 어느 정도 꺼지면 풍물을 멈추고 춤도 멈추며, 마을을 향하여 징을 높이 들고 여러 차례 쳐 온 마을에 제 올림을 알린다. 이어서 제상을 차리고 제를 지낸다.

제상은 일반 밥상을 이용하여 북향으로 차린다. 제물은 떡 한 시루, 돼지머리, 밥, 미역국, 삼색과일, 초(쌀에 꽃음), 향 등이다. 먼저 마을 이장이 술을 한 잔 올리고 재배 하고, 이어서 비손이 징을 엮어놓고 두드리면서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비손이 올리고 마을 사람들도 올린다.

소지는 백지를 태우는데 양손으로 받쳐 치켜들고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태운다. 거의 다 타면 공중에 띄우는데 마지막 남은 종이가 높이 올라가면서 타야 하늘에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당산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남녀가 모두 참여하지만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지낸다.

낮에 용못에서 떠 온 물은 불을 놓고 풍물을 치며 노는 중에 서로의 머리 위에 뿌리며 “비온다, 야 비온다”라고 소리친다.

소지까지 끝나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먼저 술을 나누어 마시고 나머지 제물도 나누어 먹는다. 제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남자들은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흙을 덮는다. 꺼진 것을 확인한 후에 모두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간다.

3) 성주면 성주리 별뿔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성주리 별뿔 마을은 석탄 광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성주면의 중심마을이었다.

마을 주변은 중생대 퇴적암 지대로 500~600m의 높은 산지가 둘러싸고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 하천 주변에 좁은 논을 개간하였으나 홍수의 피해가 컸다.

석탄 산업이 발달하였던 1960~1970년대에는 인구가 급증하여 마을이 분구(分區)되었고, 동제(洞祭)도 따로 지내게 되었다. 먹방, 성주 7리, 성주 8리 마을도 원래 벌뜸에 속했으나 분구되어 따로 동제를 지낸다. 또한 마을 안에는 백제시대에 세워지고 통일신라 시대 무염국사에 의해 중창된 성주사지가 있다.

마을의 주민들은 대개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일부만이 석탄광산 개발 이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2) 제의 준비

성주 5리 즉, 벌뜸·양지편·탑동 마을이 정월 초아흐렛날 산신제와 거리제를 함께 지낸다.

산신당은 성주사지 동남쪽 산제당골의 바위 밑에 있다. 슬레이트 지붕 1칸 집인데 기둥이 크고 잘 지어진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기와로 지었다가 슬레이트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산신당(1999. 2)

제당의 북벽에는 수염 난 노인, 달, 기러기, 호랑이가 그려진 산신도가 유리 액자에 담겨 걸려있고, 산신도 밑에는 시멘트로 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단의 앞에는 세 사람이 들어갈 정도 넓이의 공간이 있다. 대들보에는 龍 光緒六年庚辰十一月初一日酉時立柱上樑良坐坤向 虎라고 써어 있어 1880년에 건립되었음을 말해준다.

산신제는 정월 초이틀부터 시작한다.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뽑고 걸립을 시작한다. 걸립은 이장이 주관하는데 풍물패와 함께 마을의 유지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한다. 옛날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풍물을 쳐주었다. 이것을 ‘지덕 누른다’고 하여 그 해에 운수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요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집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자진해서 내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지나친다.

걸립액은 현금으로 70여 만원 정도이다. 한집에서 2,000원에서부터 30,000원 정도까지 부담한다. 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경우도 강요하지는 않는다. 과거 광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220가구나 되었고 많은 돈이 걷혔으나 현재는 100여 가구밖에 안 되고 걸립 액수도 7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정월 초이틀부터 당주와 제관, 축관은 외부 출입을 삼간 채 매일 목욕재계하였다.

당주는 부정 때문에 시장보러도 가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금기 사항이 약해진 경향이다. 그래도 당제 기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젓날을 연기하였다. 1999년의 경우 마을에 초상이 있어 정월 열사흘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당주는 늘 근신해야 했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옛날 어떤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제를 올리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 쌍욕을 하였더니 금새 입이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한다.

젓날이 가까워지면 제관과 축관이 대천장에 가서 제물을 산다. 해마다 자리와 술을 새로 사는데 제에 사용하고 나면 당주한테 준다. 제 전날에는 마을 회관에서 돼지를 잡는다. 산신제에 쓸 돼지머리와 고기의 절반은 당굿집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제 다음날 회관에서 먹기 위해서 회관에 놓아둔다.

젓날이 되면 마을 사람 세 사람을 뽑아 품삯을 주고(1998년 각 5만원, 1999년 각 3만원) 제 준비를 시킨다. 이들은 먼저 산제당에 가서 진입로와 제당 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변의 낙엽을 모두 긁고, 불 피울 나무를 준비하고 술을 걸 수 있도록 돌로 아궁이를 만든다.

그리고 제당의 문 앞에 양쪽으로 3점씩 황토를 놓는다. 거리제 지낼 장소에 1짐 정도의 황토를 가져다 쌓아놓고 거리제 지내는 곳 주변에 통나무를 준비하며, 성주사지 대낭혜 화상탑비의 앞에도 황토를 놓는다.

젓날이 되면 당주 집에서 음식을 차린다. 산제에 쓰는 떡은 백무리로 3되 3흡을 하는데 당주 집에서 찌고, 노구메(밥)는 1되 3흡을 하는데 쌀만 씻어 산제당 앞에서 불을 때서 익힌다. 그리고 약간의 과일과 포, 김, 미역, 참기름을 준비한다.

(3) 산신제

젓날 오후 5시쯤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당주, 제관, 축관 세 사람뿐이다. 과거에는 지계에 제물을 지고 갔으나 1999년의 경우는 손수레를 밀고 갔다. 옛날에는 풍물꾼들이 제당에 오를 때까지 풍물을 쳐주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1999년의 경우는 풍물을 치지 않았다.



제상(1999. 2)

산제당에 도착하면 한 사람은 제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하며 한 사람은 노구메(밥)를 짓는다. 제물은 제단에 백지를 깔고 접시 없이 진설한다. 산신도 앞에 술잔과 젓가락을 놓고, 술잔 앞에는 작은 그릇에 참기름을 넣고 심지를 세운 후 불을 켜다.

그리고 떡을 시루째 놓고, 밥은 솥째 놓는다. 그 옆에 돼지머리를 놓고 대추, 밤, 꽃감, 과 등 약간의 과일을 놓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과 마른 미역을 놓는다. 맨 앞 단 아래에는 향을 피운다. 밥을 짓는 물은 당굿집에서 떠온다.

제의 순서는 먼저 당주가 분향 재배하고, 빈 잔에 술을 조금 부어 버리고(강신) 이어서 술을 한 잔 올린다. 그리고 당주와 제관은 엎드리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산신제 축문〉

維 歲次壬申正月朔初九日戊午辛未生崔秉元敢昭告于 山王大神之位 伏以肇 開子闢丑 維山維靈 帳佐宜陰 應如顛響 茲以春正 敢暢微誠 潛心虔禱 庶幾感臨 瘟痘癘疫 攘之勿侵 鳥獸盜賊 一切呵噤 暢暢年登 五穀家家 日致千金 如是發願 感以來歆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 尚 饗

산왕 대신령님의 존위에 고하나이다. 앞드려 헤아리건대 천지가 비로소 열리매 자방으로부터 열려 축방으로 뿔으니 오직 산과 오직 신령님이신지라 마땅히 그윽히 보우하사 응호함이 호향(顛響)같이 하시기를 이 봄 상정에 감히 작은 정성을 창달하여 침묵한 마음으로 공손히 기도하오니 모든 것을 감림하사 염병, 역병, 문등병, 홍역 등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침범치 못하게 하며, 조수나 도적들을 일체 엄축하고 창달한 연풍과 오곡이 집집마다 있으며 날로 천금을 이루고 자 이같이 발원하오니 감동하사 왕립하시기를 삼가 청작과 포혜로써 공손히 차려받드오니 흠향 하소서

독축이 끝나면 모두 절을 두 번 하고 이어서 술을 두 잔 더 올리고 절을 하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백지를 접어 불에 태우는 것인데 먼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5리 주민들이 일 년 내내 평안하고 소원성취하게 해 달라고 빈다. 이어서 장부에 적힌 걸림에 응한 사람들을 호명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주문을 외우면서 소지를 올린다. 많은 사람이 올리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소지가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는 것으로 산신제는 끝난다. 이어서 축관이 밤, 대추, 꽃감 몇 개를 들고 나와 산제당 주변에 던지며 ‘고시레!’ 한다. 그리고 제에 참석한 사람이 간단한 음복을 하고 제물을 거두어 당굿집으로 향한다.

당굿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제 지낸 사람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거리제를 서두른다.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성주사지에 가서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 간단하게 제를 올린다.

(4)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제(祭)

산제당에서 내려오면 성주사지의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 제를 올린다. 아주 옛날부터 올려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올린다고 한다. 이곳에는 젓날 낮에 황토를 2곳씩 3줄로 놓아 잡인의 출입을 금했다. 이 제는 당주가 참석하지는 않고 아무한테나 의뢰하면 간단하게 올린다. 1999년의 경우는 제물이 소주 1병, 밤, 대추 몇 개, 북어 한 개 등이었다.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제(1999. 2)

주민 한 사람이 황토 사이에 백지를 펴고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올린 후 절을 두 번 한다. 그리고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는 소지를 올린다. 제를 마치면 제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내려온다. 이어서 거리제를 지낸다.

(5) 노제(路祭)

노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작은 말뚝 다섯 개를 만들어 한쪽 면을 깎고 中央黃帝將軍, 東方靑帝將軍, 西方白帝將軍, 南方赤帝將軍, 北方黑帝將軍이라고 쓰고, 떡을 준비한다. 떡은 방앗간에 맞추는데 많은 양을 해야 주민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네 말을 만들었다. 제물로는 대추, 밤, 꽃감, 배와 3가지 나물을 준비한다.

노제 지내는 장소인 벌뜸 마을 입구에는 낮에 황토 한 짐을 높이 쌓고, 주변에 네 무더기의 황토를 놓으며 불피울 통나무를 준비한다. 날이 어두워지고 풍물꾼이 나와 풍물을 치면서 불을 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다. 1999년의 경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50여 명이 모였다.

당주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많은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시를 함께 가져와 제물을 담는다. 제물의 진설은 다음과 같다.

황토 무더기의 맨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팔떡을 한 시루 놓는다. 산신제는 백무리를 사용하지만 거리제는 팔을 섞은 떡을 쓴다. 떡시루의 가운데에는 산신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작은 그릇(종채기)에 참기름을 담고 그 속에 다리가 세 개인 십지를 세우고 불을 켜 놓는다.



노제(1999. 2)

이어서 동서남북 중앙에 준비한 말뚝을 꿰고 말뚝 앞에 당 세 그릇, 대추, 밤, 꽃감, 배, 명태포, 술잔이 각각 담긴 접시를 놓는다. 이때까지는 농악을 울리지만 제가 시작 되면 농악을 멈춘다.

이어서 당주가 향을 피우고 술잔을 모두 올린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는 중앙, 동, 서, 남, 북 순이다. 그리고 당주는 엎드리고 축관이 노제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노제 축문〉

維 歲次癸酉正月甲辰朔初九日壬子幼學金天峯 敢昭告于 土地之神 之位伏以 大道如髮 百靈所處 上有喬嶽 傍臨寒泉 祈福攘災 其應昭昭 我禱久矣 所願惟何 百般崇幘 一切呵噤 虎狼蛇蝎 鳥雀猪豚 凡諸害人 這這迸逐 伏惟尊靈 感我微誠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 尚 饗

김태봉은 감히 토지의 신위전에 고하나이다. 엎드려 헤아리건대 대도는 터럭과 같이 일백의 신령님이 처하시는 바라 위로는 높은 교봉(喬峰)이 있고, 곁에는 청한(淸寒)한 영천이라 엎드려 원하건대 복은 내려주시고 재앙은 물리치며 그 소명한 응호 주시기를 우리들이 오래 기도하며 원하는 바는 무엇인고 삼재와 팔란을 모두 엄히 가금(呵噤)하고 범과 이리, 뱀과 전갈, 새와 참새, 멧돼지, 모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모두 먼 데로 병축(迸逐)하옵소서. 복망(伏望)컨대 존엄하신 신령님이시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감응하시기를! 삼가 청작과 여러 가지 음식을 공손히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축이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고 소지를 올린다. 먼저 축관이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다. 이어서 당주의 소지를 올리고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 모두가 나아가 한 명씩 소지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자기 소지를 올리는지 주목하기도 하며 나중에 소지를 올리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한다.

소지를 올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지루해지고 어린이들은 과일이 먹고싶어 슬금슬금 가져가기도 하고, 어른들이 집어주기도 한다. 멀리 있는 제물부터 없어지고 당주 앞에 있는 제물이 가장 늦게 없어진다. 소지를 마치기 전에 과일과 포는 거의 없어졌다. 소지가 끝나면 당주와 제관 축관은 두 번씩 절하고 밤, 대추 등 남은 과일 몇 개를 주변에 던져 고시례를 한다.

이어서 떡을 나누어주라고 하면 마을의 여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준다. 서로 가져가려 해 순식간에 2말의 떡이 없어졌다. 나머지 2말의 떡은 당주 집으로 옮겨 그날 저녁 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다음날 회관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옛날에는 떡이 귀해서 1가마 정도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노제를 마치면 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앞장서고, 당주, 축관, 제관과 이장 등 제를 주도한 사람들은 당짓집으로 향한다. 당짓집 앞 도로변에는 큰 상 몇 개를 펴놓고 술과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 1999년의 경우는 날씨가 춥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거실로 안내되었다.

(6) 제의 결산

제 다음 날은 마을회관에서 돼지고기, 술, 떡 등 음식을 먹고 마을 총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동제의 경비를 결산하고 당주와 제관의 수고비도 준다. 1998년 당주에게는 100,000원, 제관 축관에게는 5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

4) 기타 마을 동제

(1) 청소면 신송리 고잠 마을 당제

〈축문〉

維 歲次乙丑一月庚寅朔二日辛卯海東大韓民國忠清南道保寧郡靑所面新松里高岑洞祭主○
○生○○○ 敢昭告于 堂山神 伏以天壤之間 萬物之中 惟人最貴 惟神最靈 以貴敬靈 以靈
佑貴 天道之常經 古今之通 誼昔殷湯 禱於桑林 得千里之甘雨 漢之諸葛 祭山得風 神功鬼
力 於斯可驗 今我洞人口不圓六畜不富故助我洞人口 謹以清酌庶羞 斂其惟神 尙 饗

해동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 신송리 고잠동 제주 ○○○는 감히 당산 신령님에게 밝게 고하나이다. 앞드려 헤아리건대 천지의 사이 만물의 가운데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고 오직 신이 가장 영험한지라 인간은 신령님을 공경하고 신은 사람을 도우니 이는 천도의 떳떳한 경륜이며 고금에 통한 의(誼)라 옛적 은나라 탕왕은 상림(桑林)에서 기우(祈雨)하여 천리에 단비를 얻었고, 한나라 제갈공명은 산에 제사하고 바람을 얻었으니 신의 공과 귀신의 위력을 이에 가히 증명함이라. 지금 우리 마을 인구가 원만치 못하고 육축(六畜)이 비부(肥富)치 못한 까닭으로 우리 마을 인구를 조우하여 주십시오. 청작(淸酌)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었으니 신령이시어 거두어 흠향하소서.



고잠마을 당집(1996. 1)



당산오르기(1999. 2)



말바위(1996. 1)



당제(1999. 2)

(2) 오천면 영보리 섯바탕이 마을 동제



당제(1999. 2)



유왕제(1999. 2)



당제(1999. 2)



거리제(1999. 2)

(3) 오천면 효자도 동제



당집(2007. 5. 26)



선창에서의 희식 모습(2008. 2)



당제 올리는 모습(2008. 2)



장승고개(2008. 2)



당집에서의 풍물패(2008. 2)



효자도의 장승
(박계홍교수 사진)

(4) 주포면 연지리 칩머리 고목제

〈축문〉

○○年正月初二日行事 代表○○○

維 歲次某年干支 忠清南道保寧市周浦面蓮芝里葛頭洞

居住代表○○○外大小諸氏人等謹齋沐百拜敢昭告于洞中槐之神伏以英靈精衷受命自天臨我洞中惠被木德四時陽春無聲而聽不言而伸之氣和順五穀豐穰三災消滅百祿無疆父母安樂子孫繁榮疾病癘疫逆諸遠方一年之內安過太平是誰之賜實賴靈伏茲值元吉報賽禮修敢用菲薄教伸厥由靈共格思庶其佑之 尙 饗

갈두동에 거주하는 대표 ○○○ 외 모든 사람들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백배하며 감히 우리 동중(洞中)의 괴목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앞드려 헤아리건대 영령이시어 정기를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 우리 동중에 임하사 목덕(木德)의 은혜를 힘입어 사절(四節)을 온화한 봄철과 같이 하여 소리가 없어도 들리고 말이 없어도 퍼지니 기후가 화순하고 오곡이 풍요롭게 결실하며 삼재를 소멸하고 백록을 강인함이 없게 하고 부모는 안락하고 자손은 번영하며 질병과 전염병을 흠어 모두 멀리 보내고 일년 내내 편안함과 태평케 함이 이는 누가 주는가, 진실로 신령님의 힘입음이라. 그러므로 이 상달 길한 날을 가려 예로 정수하여 보새(報賽)하고 감히 비박(菲薄)으로 정중히 펴니 그 신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격사(格思)하오니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흠향하소서.



당주집에 걸린 대동기(1999. 2)



당주집마당(1999. 2)



고목제(1999. 2)



당주집마당(1999. 2)

(5) 대천동 동제

〈축문〉

維歲次 ○○ 正月 ○○ 朔 十四日 ○○ 幼學 ○○○ 敢昭告于 山神之位
 名山鎮北 揚靈降祥 實賴默祐 宜我農商 鼓潤以時 毘邦禳禳 舟車利涉 民物俱昌
 盈止寧止 來福無量 上元極煙 庶歛射觴

유학 ○○○ 감히 산신지위에 고하나이다. 산명은 진북(鎮北)이니 영험을 발양하시어 길상을 내려주시고 진실로 묵묵히 도와주시어 마땅히 우리들의 농사와 상업을 때때로 어루만지고 윤택케 하고 국가에 명성을 거양케 하며 주운(舟運)과 차량이 이롭게 다니게 하고 백성과 만물이 다 창달하며 성실과 안녕을 유지하고 복 받음을 한이 없이 되기를 이 상달에 분향하고 여러 가지와 잔을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시내를 도는 풍물패(2005. 2. 22)



산신제의 시작(2005. 2. 22)



소지(2005. 2. 22)



거리제(2005. 2. 22)

(6) 화산동 고리굴 괴목제

〈축문〉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六年歲次癸酉一月甲辰朔十五日戊午後學○○○敢昭告于 南
 無樹君之神 奉一千年史 神其最靈 能威能猛 消災降福 有求皆遂 加護妙力 是以 淨餅 供

疊五方諸神 下意同參 常逢吉慶 福壽增延 子孫榮顯 五穀培盛 六畜潤長 遠祛三災八難 不逢官災 洞民仰願 病弱者 卽得快愈 職務者 隨分成就 謹具敢告 百拜千祈 樹君尊靈 歆於尙饗

후학 ○○○ 감히 수군(樹君) 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일천 년을 받든 신의 큰 영험이 능위와 능맹으로 재앙은 소거하고 복은 하강하시며 구하는 것은 다 이루게 하고 묘력을 가호하시니 이로써 정병(淨餅)과 공뢰(供蠶)로 오방 모든 신령이 내려 뜻을 같이 참여 하사 항상 길경(吉慶)을 맞이하게 하고 복수(福壽)를 증연(增延)하며 자손들을 영현케 하시고 오곡을 배성케 하며 육축을 운장케 하고 삼재와 팔란을 멀리 보내며 관재를 없게 하시기를 동민들은 우리러 바라오며 병약한 자는 곧 쾌유를 얻게 하고 직무자는 수분(隨分)하여 성취케 하시기를 삼가 갖추어 감히 고하고 백배기(百拜祈)하오니 수군존영(樹君尊靈)이시어 응감하고 흠향하소서.



괴목제(1994. 2)



풍물치기(1994. 2)

(7) 화산동 오얏굴 산신제

〈축문〉

維 歲次 ○○正月 ○○朔 ○○日 ○○ 堂主 ○○○敢齋沐百拜 祝願于主山之神日
 天地肇判 山岳爲鎮 神以佑人 巍彼聖山 最貴者人 最靈者神 人以依神 維洞之鎮
 民俱爾瞻 日有尊神 所求者多 日有尊神 所願者成 伏惟尊靈 昭格于下
 調順風雨 遠祛水火 瘟疫不犯 虎豹奔走 稼穡比登 墻堵咸寧 魅魍晦蹤 盜賊遁藏
 五穀蕃熟 戶口殷富 神其明矣 神其靈矣 六畜茁長 老少咸寧 何所不行 何事不成
 茲值孟春 日吉辰良 戒心浴誠 淨掃壇場 奠牲于俎 崇酒于觴 隨事祝願 宜應如響
 今此東山 賴以永昌 謹以 菲薄尊具 薦此祝事 尙饗

당주 ○○○는 목욕재계하고 백배하옵고 주산 신령님께 감히 축원하나이다. 천지가 비로소 열리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요, 산악을 진압하는 데 가장 신령스러운 것은 신이라. 신은 사람을 돕고 사람은 신을 의지하니 높은 저 성산이여 오직 우리 마을을 진호하사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날로 존엄하신 신령님이 있음으로 구하는 바 많고 원하는 바 이루게 하소서. 엎드려 헤아리건대 존엄하신 신령님이시어 아래 소에 이르소서. 풍우를 고르고 순하게 하사 가색을 비등케 하고 수마와 화재를 멀리 보내며 담장과 울분을 무극(無隙)케 하고 전염병이 범하지 못하게 하며 악귀는 자취를 감추게 하고 도적을 숨어 감추게 하며 야수를 멀리 달아나게 하고 오곡이 번창하고 성숙케 하며 육축을 비장케 하고 호구를 더하며 부하게 하고 노소가 다 안녕케 하사 신의 밝음으로 무엇인들 행하지 못할 바며 신의 영험으로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리오. 이 맹춘(孟春)에 이르러 길한 날과 좋은 일진에 마음을 경계하고 성심으로 목욕하여 정히 단과 장을 청소하고 희생(犧牲)을 제기에 올리고 술을 잔에 올리오며 일에 따라 축원하오니 마땅히 응하시기를 영향같이 하사 지금 이 동산에서 길이 창성함이 힘입기를 삼가 비박(菲薄)으로 차려 이에 받들어 축사하오니 흠향 하소서.



산제당(2002. 2)



산제샘(2002. 2)



산제(2002. 2)



제물(2002. 2)

(8) 화산동 큰골 기우제



넷물로 행진(1994. 7)



산에서의 기우제(1994. 7)



넷물에서의 기우제(1994. 7)



기우제 축문(화산동 굴고개)

(9) 내항동 녹문마을 동제



팽나무제(2002. 2)



거리제(2002. 2)

(10) 청라면 의평리 검발 마을 동제

〈산신제 축문〉

維 歲次庚寅正月癸未朔五日丁亥 幼學○○○ 敢昭告于 聖住山神之靈曰

山名錫佳 儼立導像 巖巖洋洋 稟天之聖 拱抱吉星 鎮我一村
 仁以生民 孝悌順信 壽富康寧 禾黍登穰 德以保民 惟靈所導 惟靈所佑 惟靈所助
 蓮桂香名 弄璋興汎 福善有惡 三災八亂 惟靈所賜 惟靈所俯 惟靈所保 放斯敢售
 五勞七傷 居此山下 巖有常祀 載牲以簡 放斯敢肆 影瞻莫報 元正辰良 灌酒以清
 恭祝虔告 神既格思 祥雲降靈 人敢射思 伏惟庶歆 尚 饗

유학 ○○○ 감히 성주산 신령님께 고하나이다. 명산은 석가(錫佳)니 장엄히 솟아있으며 외외(巍巍)하고 광대하니 하늘이 내려주신 성산이라 길성(吉星)을 포공(抱拱)하니 우리 한 마을을 진호하소서. 인으로써 백성을 생활케 하고 덕으로써 백성을 보우하시고 연(蓮)과 계(桂)의 향명(香名)은 오직 신령님이 사(賜)함이요. 오로(五勞)와 칠상(七傷)을 방축(放逐)하고 과감히 베푸사 효와 제(悌)며 순(順)과 신(信)은 오직 신령님이 부한 바요, 이 산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수하고 부케 하고 강령케 함은 오직 신령님이 도우신 지라. 덕 있는 이를 부(富) 주시고 미운 자를 용서함은 오직 신령님이 보우하신지라. 오곡이 숙실(熟實)함은 오직 신령님이 도우신 바라 농장(弄璋)을 다범(多汎)케 함은 신령님이 가호한 바라 삼재(三災)와 팔란(八難)을 과감히 쫓아 보내고자 암석(岩席)에 항상 제사 올리기를 희생과 모든 음식으로써 정성으로 상달 좋은 일진에 청주로 따라 공손히 빌고 공경히 고하니 신령님이시어 이미 격사(格思)하사 복운을 강림하사 과감히 영사(靈思)를 주시옵기 앞드려 비오니 흠향하시고 응감(應感)하소서.

〈정자나무제 축문〉

維 歲次己卯元正 幼學○○后人○○○敢昭告于 烏聖之間桃花洞心身至誠
 伏惟尊靈 長盛大木 永久榮生 茂實致祥 時和年豐 官清民安 福祿善慶
 謹以清酌庶羞祗薦歲事 尚 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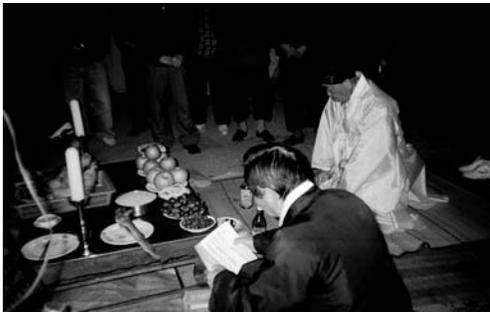
유학 ○○○는 감히 성주산과 오서산 사이에 거주하는 도화동에서 몸과 마음을 지성으로 고하나이다. 앞드려 헤아리건대 존엄하신 신령님이시어 장성 대목을 오래도록 영화롭고 생광케 하시어 무성하고 결실하여 상스러움이 이르게 하고 시화연풍(時和年豐)하며 관공은 청백하고 민중은 안락하며 복록과 선경기를 삼가 청작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써 공손히 받드오니 흠향하소서.



농악(1999. 3. 1)



소지(1999. 3. 1)



정자나무제(1999. 3. 1)



떡 나누기(1999. 3. 1)

(11) 성주면 성주리 먹방 마을 동계

〈축문〉

維 歲次丙子年正月丙戌朔十三日戊戌 幼學鍾五敢昭告于 歲序遷易 丙子新年 大同民安
萬事亨通 所願成就 尊神其保佑 勿無後難 謹以清酌 脯醢祇薦于神 尚 饗

유학 ○○○는 감히 고하나이다. 세월은 차례로 옮기고 바뀌어 병자년인 새해에 온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하며 소원을 성취함을 존엄하신 신령님이 보우하사 다
후란이 없게 하시기를 삼가 청작과 포혜로써 공손히 받드오니 신령이시어 흠향 하소서.



산제당(1999. 2)



제상(1999. 2)



소지(1999. 2)



거리제(1999. 2)

(12) 성주면 개화리 지계굴 마을 동제¹⁾

〈동부동남방 도로신 축문〉

維 歲次己卯正月己亥朔十五日己丑 忠清南道 保寧市 聖住面 開花里 造溪洞
 東部東南 道路之神曰 上下居人 敢昭告于 東部東南 上善村里 一年四時 解怨出勤
 惟路蕩願 不通遠野 男女老少 繼存此路 朝往暮歸 願惟神明 默佑讚護 山魔水妖
 咸有斯路 迎來送去 履攝安行 門住不犯 都事備留 風到潛與 天陰雨濕 有功客地
 前道勿冗 轉便驅梅 苛禁不祥 위덱아혼 當到勅使 逐鬼將軍 千戶萬事 謹以酒果
 被露自生 發臯時回 雲樹茂山 眞事祈祀 尙 饗

동부 동남방에 도로의 신령이시어 상하 동리 주민들은 감히 밝혀 고하나이다. 동부 서북쪽 상선 마을이 일년 사시에 원망 없이 출근함은 오직 이 길이 탕원(蕩原)함이라. 원야에 불통이나 남녀노소가 이 길이 있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니 원컨대 오직 신명이시어 묵우하고 찬호하사 산마와 수요도 다 이 길이 있어 내자는 영입하고 거자는 호송하여 길을 천답(踐踏)하고 편히 왕래하며 문전에 주유하는 비운은 범치 못하게 하며 길사가 갖추어 있게 하고 풍부함이 다 같이 있게 하고 큰 우로의 덕이 훈훈하며 객지에도 공명이 있게 하여 전도에 침체됨이 없게 하며 모든 악성을 원방으로 구축하며 불상사는 엄금케 하여 마땅히 귀객이 이르게 하고 축귀장군은 천호만사를 영원히 보우하시기를 삼가 주과로써 훈감함이 스스로 나게 하고 호택(好澤)을 발하여 시시로 회시하고 수목은 운장하고 산색은 무성하기를 참으로 기도하오니 흠향하소서.

1) 원래는 한문으로 된 축문이였으나 없어지고, 한글로 씌여진 축문만 남아있다. 박정순님이 한문으로 옮기고 번역하였다.

〈오방토지지신 축문〉

維 歲次丙子正月庚寅朔十五日庚子 忠清南道 保寧郡 聖州面 開花里 造溪洞
 上下居人 敢昭告于
 五方土地之神曰 天下有 天下之五方 一國有 一國之五方 一邑之五方 一村有 一村之五方
 惟自東部 元有五方 東西南北 中央地之神 此際降臨 陰此明里 北以東方青龍 青帝地之神
 主春三朔 寅甲卯乙 巽木旺生 物地祇以 斯此村人 春三朔 太平安樂焉 南方燧灼赤帝地之神
 主夏三朔 巳丙午丁 坤坡旺長 物地祇以 斯此村人 夏三朔旺下降靈焉 西方白虎 白帝地之神
 主秋三朔 申庚酉辛 乾金旺生 物地祇以 斯此村人 秋三朔 豐糧成熟焉 北方玄武 黑帝地之神
 主冬三朔 亥壬子癸 坎水旺長 物地祇以 斯此村人 冬三朔 室處胞煖 中央后土 黃帝地之神
 主四季 辰戌丑未 坤艮土旺 物地祇以 兼通四書 爲育萬物斯此村人 一年十二月 安樂康寧焉
 人人長壽 家家富饒 無子者有子 無孫者有孫 病者驗差 水火盜賊 地厄官災 口說之厄
 動土長木 支厄年厄 月厄日厄 時厄消滅 消除 身數農數財數大通耳 堂上城皇
 西王之氣 退請大風 勿沉勿犯 山魔水妖 川蔭非壤 雨濕陰事 橫事流昏
 洞閭艷氣 風到箋便 速僭疾求 保佑一村 其愛嘉名 信賴五方地之神
 地有司 謹以清酌 庶羞陳 祈 尙 饗

상하동에 거주하는 동민들은 감히 오방토지지신령에게 고하나이다. 천하는 천하의 오방이 있고 일국은 일국의 오방과 읍읍의 오방이 있고 일촌은 일촌의 오방이 있음이라. 오직 동부로부터 오방이 있으니 동서남북과 중앙의 신령이시어 차제에 강림하사 그옥한 이 명리에 동방청룡으로써 청제의 신령은 춘삼월의 주이시니 인갑묘을이며 손목이 왕생함이니 만물지신과 토지지신이여 이 마을 주민들이 춘삼월에 태평안락케 하소서. 남방에 수작이신 적제지신은 하삼월의 주이시니 사병오정이며 곤과왕생함이니 만물지신과 토지지신이여 이 마을 주민들 하삼월의 행운에 강령하소서. 서방의 백호이신 백제지신은 추삼월의 주이시고 신경유신이며 건금이 왕생함이니 만물지신과 토지지신이시여 이 마을 주민들이 추삼월에 풍량성숙케 하소서. 북방의 현무이신 흑제지신은 동삼월의 주이시고 해임자계이며 감수가 왕장함이니 만물지신과 토지지신은 이 마을 주민들의 실처가 포난케 하소서. 중앙의 후토 황제지신이여 사계절의 주이시고 진술축이며 곤간토왕이니 만물지신과 토지지신이여 사서를 겸통하고 만물을 위육하사 이 마을 주민들의 일년십이월에 안락과 강령케 하시고 사람마다 장수하고 집집마다 부요하며 무자자는 유자하고 무손자는 유손하며 병고자는 쾌유하며 수재, 화재, 도적, 지액, 관재, 구설지액, 동토액, 벌목액, 지액, 연액, 월액, 일액, 시액을 소멸 소제하옵시고, 신수, 농수, 재수, 대통하옵시고, 당상과 성황과

서왕의 기력으로 태풍을 퇴칭케 하옵시고, 물침 물범하며 산마수요가 천음하야 붕괴치 않게 하고, 우습(장마)과 음사며 불길한 일은 원방에 유산케 하고, 동리에 염염한 기운은 풍전에 지엽과 같이 하고, 참질을 속히 구제하야 일촌을 보우하사 그 가명을 애호하시고 오방지신을 신뢰케 하시기를 지유사는 삼가 청작과 모든 음식을 차려 비오니 흠향하소서.



제 준비(1999. 3)



참나무 밑 거리제(1999. 3)



정자나무자리 거리제(1999. 3)



산제 소지(1999. 3)

(13) 남포면 삼현리 조잠 마을 동제



조잠 당집과 신수(1996. 3)



당집 내부(2002. 2)



당제 준비(2002. 2)



희식(2002. 2)



서쪽 바닥 제물(2002. 2)



상량문(2008. 2)

(14)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 마을 동제



경모전(1996. 3)



경순왕 기



위패(2002. 2)



옛 당집

(15) 응천읍 노천리 가라티 마을 동제

〈축문〉

維 歲次己卯正月己亥朔九日丁未○○ 敢昭告于
 維山惟靈 逮仁不流 膏潤風雨 其德孔仁 佑我洞人 造化陰陽
 六畜繁殖 有廩有困 快樂年豐 百穀湧成 無災無害 咸希到泰
 補空伊何 文以處高 清酌潔饗 慎祈饗之

해는 차례로 이어 기묘년 정월 구일에 유학 모는 산신령님께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인에 미쳐 떠나지 아니하사 풍우를 고루 윤택케 하시니 그 덕이 공자의 인이라. 우리 동인들을 도우사 음양을 고루 화하시어 육축을 번식케 하고 늪(廩)이 있게 하고 균(困)을 두게 하며 쾌락한 풍년으로 백곡이 솟아나 이루도록 하고 재앙이 없고 화해(禍害)도 없이 하여 다같이 큼에 이루도록 희망하오니 모든 빈자리를 보우하시고 문장으로써 높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기를 청작(淸酌)과 결찬(潔饗)으로 삼가 받드오니 이에 흠향하소서.



당줏집(1999. 2)



불바지쌀(1999. 2)



걸립(1999. 2)



당샘과 금줄(1999. 2)



당오르기(1999. 2)



당제의 밥과 국(1999. 2)

(16) 주산면 금암리 청석다리 마을 동제

〈축문〉

維 歲次 ○○正月 ○○朔 初三日○○ 幼學 ○○○ 敢昭告于
明山之神 維此孟春 若時昭事 一里康吉 百穀豐穰 冀賴神休
非禮將誠 惟神顧歆 永尊厥居 尚 饗

유학 ○○○는 감히 명산 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이어가는 이 맹춘에 때때로 모든 일을 밝히사 우리 한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평길하며 백곡이 풍년되어 잘 여물고 원하는 것은 신령님의 넉넉한 선을 힘입으사 미비한 차림이나 받들어 정성드리오니 오직 신령님이시어 돌보시고 길이 귀존한 그 자리에 거하사 흠향하소서.



원새끼꼬기(2002. 2)



산제당 청소(2002. 2)



정주나무 금줄치기(2002. 2)



산제(2002. 2)



산제당 입구 금줄치기(2002. 2)



정주나무제(2002. 2)

(17) 주산면 화평리 샷갯재 마을 단오제

〈축문〉

維 歲次 己卯 五月庚午朔 五日辛丑 幼學白永錫 敢昭告于 애기佛像之神
○○珠山面 花平里蕪峴洞 家家戶戶 無病長壽 富貴榮華 太平聖代祈願
謹以清酌 脯醢 疏薦于神 神其佑之 尙 饗

해는 차례로 이어 기묘년 오월 오일에 유학 모는 감히 애기불상 신령님께 밝게 고하
나이다. 우리 주산면 화평리 약현동에 가가호호마다 무병하고 수명은 장수하며 부귀하
고 영화로우며 태평성대케 하옵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맑은 술과 안주는 변변치 못하오
나 삼가 신령님께 받드오니 신령님이시어 이를 도우시고 흠향하옵소서.



동자상(1999. 6)



단오제(1999. 6)



그네매기(1999. 6)



회식(1999. 6)

도움말 주신 분(1999-2008, 조사 당시의 연령)

김창룡(80)	청소면 신송리 423	유영애(67)	청라면 의평리 352
이봉성(78)	청소면 신송리 466	최병원(69)	성주면 성주리 141 벌뜸(5리)
김복룡(62)	청소면 신송리 432	김유현(57)	성주면 성주리 97-2 양지뜸(5리)
이정웅(68)	청소면 신송리 446	손종국(58)	성주면 성주리 130-1 양지뜸(5리)
최관용(68)	오천면 영보리 400	박승만(65)	성주면 개화리 68
정종모(48)	오천면 영보리 289	문무옥(66)	성주면 개화리 산9-1
북경종(60)	오천면 외연도리, 2008년 당주	한길희(67)	성주면 개화리 52
송경일(53)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 이장	유문식(76)	성주면 개화리 94
안상철(58)	오천면 외연도리	박성희(62)	성주면 개화리 39
최홍무(69)	외연도 출신, 죽정동 유성1차 A	김영래(81)	남포면 제석리 548
신형우(56)	오천면 효자도리 199번지	김영주(75)	남포면 제석리 548
윤석동(83)	오천면 효자도리 342번지	이종례(76)	남포면 제석리 614
채철룡(74)	주포면 연지리 195	정신훈(46)	남포면 제석리 579-1
박원식(75)	대천동 19-8	김영희(61)	남포면 삼현리 590 조잠
박정순(75)	화산동 316번지	유인희(73)	웅천읍 노천리 32번지
신재화(76)	화산동 242	김문환(76)	웅천읍 노천리 324-14
김이순(77)	화산동 큰골	김요집(68)	웅천읍 노천리 335번지
조애수(71)	화산동 큰골	김한제(83)	웅천읍 노천리 459번지
이한승(64)	내향동 171	김형기(69)	웅천읍 노천리 1999년 당주
이강희(61)	내향동 171	양태성(60)	웅천읍 노천리 1999년 축관
채미홍(49)	내향동 181	임옥제(74)	주산면 금암리 550
정상린(64)	청라면 의평리 104	임익순(64)	주산면 금암리 419
한상현(73)	청라면 의평리 142	김신원(76)	주산면 금암리 178
이윤구(79)	청라면 의평리 277	김주흠(72)	주산면 화평리 430
이동규(62)	청라면 의평리 145	김준흠(65)	주산면 화평리 430